

답답한 국어영역 | 기본완성

정답과 해설



책 속의 가접 별책 (특허 제 0557442호)

- '정답과 해설'은 본책에서 쉽게 분리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므로 유통 과정에서 분리될 수 있으나 파본이 아닌 정상제품입니다.
- 표지에 사용된 코팅액에는 향균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비상교육

실전 01 쉽게 씌어진 시 / 즐거운 편지

현대시

본문 10~11쪽

1 ⑤ 2 ③ 3 ③

개념 확인 문제 1 육첩방(六疊房)은 남의 나라 2 부끄러움 3 사소한 일

가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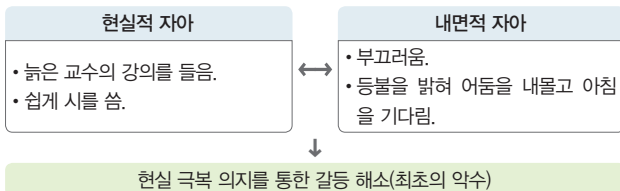
[감상] 이 작품은 이국땅에서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화자가 자신의 상황을 성찰하고 반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정적 현실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화자는 부끄러움과 회의를 느끼지만 자아 성찰을 통해 현실을 재인식하고 내면적 자아와 화해함으로써 현실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지니게 된다.

[주제] 자아 성찰을 통한 암울한 현실 극복의 의지

[구성]

1연	화자가 현재 있는 시·공간적 배경(화자의 현실 인식)
2연	화자의 슬픈 현실 인식
3연	화자에 대한 가족의 보살핌과 사랑
4연	시대의 현실과 괴리된 화자의 삶
5연	이국땅에서 느끼는 화자의 외로움
6연	무기력한 현재의 삶에 대한 화자의 회와 갈등
7연	화자의 자기 성찰과 각성
8연	화자가 현재 있는 시·공간적 배경(화자의 현실 재인식)
9연	화자의 현실 극복의 의지
10연	화자의 내면적 갈등 해소

[핵심 한눈에 보기]



나 황동규, 「즐거운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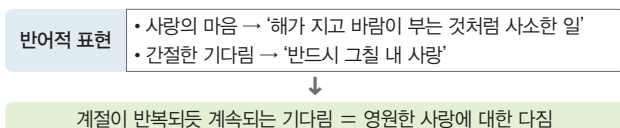
[감상] 이 작품은 편지의 형식을 취하여 화자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 노래하고 있다. 화자는 '그대'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면서도 그 사랑도 언젠가는 끝날 수 있음을 인식한 후에, 끝없는 기다림으로 극복해 가겠다고 사랑에 대한 의지를 노래하고 있다.

[주제] 기다림으로 승화된 영원한 사랑

[구성]

1연	'그대'를 향한 간절한 사랑
2연	가다림으로 승화된 영원한 사랑의 다짐

[핵심 한눈에 보기]



1 표현상의 특징

(가)에서 화자인 '나'는 자신을 성찰하며 시대 현실에 대한 부끄러움과 앞으로의 삶에 대한 의지를 혼잣말하듯이 표현하고 있고, (나)에서 화자인 '나'는 '그대'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고백하듯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는 모두 독백의 어조를 사용하여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가)의 1연에 '창 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 육첩방(六疊房)은 남의 나라,'가 8연에서 '육첩방(六疊房)은 남의 나라 / 창 밖에 밤비가 속살거려는데,'로 변조되어 나타나기는 하지만 수미 상관이라고 볼 수 없다. (나)에서도 시어의 반복은 일부 나타나지만 구조적인 반복은 나타나지 않았다.
- ② (가)에서는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를 /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라며 과거를 회상하기는 하지만 현재와 대비하여 주제를 드러낸 것은 아니다. 또한 (나)에서는 현재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과거는 드러나지 않았다.
- ③ (가)와 (나)는 주로 자신의 내면 세계를 다루고 있으며, 대상에 대한 관찰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지 않았다.
- ④ 전반적으로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를 통해 정적인 분위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2 작품의 종합적 감상

'어둠을 조금 내몰고'라는 표현은 현실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시대 현실을 이겨 내려는 자세를 보여 주는 것이다. 또한, 이 시의 화자는 주로 현재의 자신에 대해 반성할 뿐, 과거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다.

[오답 풀이]

- ① 1연에서 '육첩방(六疊房)은 남의 나라'라는 시구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화자의 처지를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나는 표현이다.
- ② '침전'은 가라앉는다는 의미로 하강적 이미지를 형성하며 화자의 무력감을 나타내고 있다.
- ④ '최후의 나'는 시인이 추구하였던 '바람직한 삶'에 대한 고민을 통해 결론 내린 삶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 ⑤ 분열된 두 개의 자아가 악수하기 위해 작은 손을 내민다고 하였으므로, 화해와 화합을 시도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화자의 정서 및 태도

㉮은 '그대'에 대한 화자의 기다림을 힘들게 하는 부정적 현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눈'은 희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밤'과 마찬가지로 화자에게 주어진 시련을 나타낸다.

[오답 풀이]

- ① 화자가 '그대'를 사랑하는 것은 자연 현상과 같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며 소중한 일인데도 이를 '사소한 일'이라 하며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② '그대'에 대한 화자의 사랑을 한없이 잇달은 기다림으로 바꾸어 버렸다고 하였으므로, 이는 화자의 사랑이 기다림으로 바뀐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④ 순리에 따라 자신의 사랑이 그친다 하더라도 '그대'에 대한 기다림의 자세를 이어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계절이 끊임없이 순환하듯이 자신의 기다림은 계속될 것이라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실전 02 누항사(陋巷詞)

고전 시가

본문 12~13쪽

1 ④ 2 ② 3 ④

개념 확인 문제 1 소를 빌리기 위해 2 구복(口腹)이 위루(爲累)후야
(먹고살기 힘들어서) 3 빈이 무원(貧而無怨)

| 박인로, 「누항사(陋巷詞)」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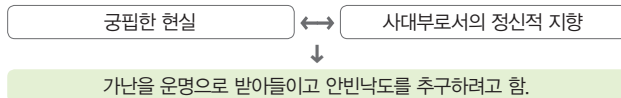
[감상] 이 작품은 임진왜란 이후 창작된 가사로 궁핍한 현실과 사대부로서의 이상 추구 간의 갈등을 그려 내고 있다. 자연 친화, 충효 윤리, 안빈낙도 등에 대한 사대부의 지향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는 조선 전기 가사의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는 상황에 처한 양반이 이웃집에 소를 빌리러 갔다가 수모를 당하는 내용이 담기는 등 당시의 사회상을 사실적으로 그렸다는 점에서는 조선 후기 가사의 특징을 띠고 있어서, 조선 전기와 후기 가사의 과도기적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제] 가난한 삶의 고충과 안빈낙도의 추구

[구성]

서사	누항에서 안빈(安貧—念)으로 살고자 함.
본사 1	임진왜란에 참전했던 경험을 회상함.
본사 2	전란 후 몸소 농사를 지음.
본사 3	농사를 짓기 위해 소를 빌리러 갔다가 수모만 당함.
본사 4	집으로 돌아와 매정한 세태를 한탄하며 농사를 포기함.
결사	빈이 무원과 안빈낙도를 추구하는 삶을 다짐함.

[핵심 한눈에 보기]



[현대어 풀이] 가뭄이 이미 크게 심하여 (농사짓기 좋은) 시절이 다 늦은 때에 / 서쪽 두둑 높은 논에 잠깐 갠 지나가는 비에 / 길 위의 근원 없는 물을 반쯤만 대어 놓고 / 소 한 번 빌려 주마 하고 엉성히 하는 말에 / 친절하다 여긴 집에 달 없는 저녁에 허둥지둥 달려가서, / 굳게 닫은 문 밖에 우두커니 혼자 서서 / 큰 기침 에헨 소리를 오래도록 한 후에 / “어, 거기 누구신가?” “염치없는 나요.” “초경도 거의 지났는데 어찌 와 계신고?” / “해마다 이러하기 구차한 줄 알지만 / 소 없는 가난한 집에 걱정 많아 왔소이다.” / “공짜로 주거나 값을 내거나 빌려 주면 좋겠지만 / 다만 어젯밤에 건넌집 저 사람이 / 목 붉은 장끼를 기름지게 구입 내고 / 갓 익은 삼해주를 취하도록 권하였는데 / 이러한 은혜를 어이 아니 값을 수 있겠소. / 내일 빌려 주마 하고 큰 언약 하였기에, / 약속을 어기기 편하지 못하니 말씀 하기가 어렵소.” / “진실로 그러하면 설마 어찌하겠소.” / 한 멧덕 숙여 쓰고 뒤죽 없는 잠신에 맥없이 물러나오니 / 풍채가 작은 모습에 개가 짖을 뿐이로다. <중략> 자연에 살겠다는 꿈을 꾸 지도 오래려니 / 먹고사는 것이 누가 되어 아아 잊 었도다. / 저 가수의 물가를 바라보니 푸른 대나무가 많기도 많구나. / 학식과 인 격이 뛰어난 선비들이 낚싯대 하나 빌리자꾸나. / 갈대꽃 깊은 곳에 밝은 달 푸른 바람 벗이 되어, / 임자 없는 자연에 절로절로 늙으리라. / 무심한 갈매기야 오라 고 하며 말라고 하겠느냐. / 다들 이 없는 것은 다만 이것뿐인가 여기노라. / 이제 소 빌리는 일 맹세코 다시 말자. / 보잘것없는 이 몸에 무슨 취향이 있으리마는 / 두세 이랑 밭논을 다 묵혀 던져 두고 / 있으면 죽이오 없으면 굶음망정, /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부러워 않겠노라. / 내 가난과 천함을 싫다 여겨 손을 내젓는다고 물러가며 / 남의 부귀를 부러워하여 손으로 부른다고 오겠는가. / 인간 어느 일 이 운명 밖에 생겼으랴. / 가난하다 해서 이제 죽으며 부유하다고 해서 백년 살겠느냐. / (청빈했던) 원헌은 며칠만 살고 (큰 부자였던) 석송은 몇 해를 살겠느냐. /

가난을 원망하지 않는 것이 어렵다 하지만 / 내 생애 이러하되 서러운 뜻은 없노라. / 소박하고 청빈한 생활을 이도 만족하게 여기노라. / 평생 한 뜻이 따뜻함과 배부름에는 없노라. / 태평천하에 충효를 일을 삼아 / 형제간의 화목과 친구와의 신의를 그르다 할 이가 누가 있으리. / 그 밖의 일이야 태어난 대로 살겠노라.

1 표현상의 특징

4음보의 율격을 형성하고 있고(ㄱ), 소를 빌리러 이웃집에 간 대목에서 소 주인과 화자가 서로 주고받은 말을 그대로 인용하였다(ㄷ). 한편 ‘손을 치다 나아오랴’, ‘가으며다 백년(百年) 살랴.’ 등에서는 설의적 표현을 사용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ㄹ).

[오답 풀이]

ㄴ. 역설법은 겉보기에는 모순된 표현이지만 그 속에 어떤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 방식을 뜻하는데, 이 가사에 그러한 표현 방식은 쓰이지 않았다.

2 화자의 정서 및 태도

[B]는 소 주인이 화자에게 하는 말로, 건넌집 사람에게 꿩고기를 얻어먹고 미리 약속한 것이 있어서 화자에게는 소를 빌려 줄 수 없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B]는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내용이므로 화자의 태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가뭄 끝에 잠깐 내린 비 때문에 급히 소를 빌리러 가는 길이라서 화자는 달도 없는 저녁에 ‘허위허위’ 달려가고 있다. 그러나 닫힌 대문 앞에 서서는 곧바로 주인을 부르지 못하고 헛기침 소리를 오래도록 내면서 소 주인이 자신이 왔음을 알아채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는 양반으로서의 체면을 의식한 행동이다.

③ 물가를 바라보는 모습, 낚싯대를 빌리는 모습, 갈대꽃 우거진 곳에 명월과 청풍의 벗이 되려는 모습, 주인이 없는 자연 속에서 근심 없이 늙겠다는 모습 등은 자연 친화적이고 유유자적한 삶을 지향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④ 자신의 가난을 뿌리치려는 노력이나 남의 부귀를 부러워하는 것이 모두 소용없음을 말하며, 인간의 일 중 어떤 것이 운명을 거스를 수 있겠느냐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일은 미리 정하여진 필연적인 법칙에 따라 일어나므로 인간의 의지로는 바꿀 수 없다는 ‘숙명론적 관점’에서 가난을 수용하고 있다.

⑤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는 가난한 삶에 만족하면서 충효, 형제 사이의 우애, 친구 사이의 신의를 실천하는 삶을 추구하겠다고 하였으므로, 분수에 만족하며 유교적 가치를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볼 수 있다.

3 시어(구)의 의미와 기능

‘무심(無心)한 백구(白鷗)’는 ‘욕심이 없는 갈매기’라는 뜻이다. 화자는 욕심이 없는 인물로 평생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고자 하므로, ‘백구(白鷗)’에 자신의 ‘무심(無心)한’ 감정을 이입하여 표현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오랜 가뭄 끝에 잠깐 지나가는 비이므로, 농사를 짓는 화자에게는 반가운 대 상이다.

② 소 주인이 이웃집에서 대접받은 귀한 술이며, 그 때문에 화자는 소 주인에게 소를 빌릴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삼해주를 마신 것은 화자가 아니라 소 주인이다.

③ 탈속적 삶에 대한 화자의 지향을 표현하고 있다.

⑤ ‘석송’은 진나라 때의 큰 부자로,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백년’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운명론적 가치관을 보여 주기 위해 예로 제시된 인물이다.

실전 01 견우의 노래 / 너를 기다리는 동안

현대시

본문 16~17쪽

1 ⑤ 2 ④ 3 ⑤

개념 확인 문제 1 화자 : 견우, 청자 : 직녀 2 물살, 바람 3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가 서정주, 「견우의 노래」

[감상] 이 작품은 견우와 직녀 설화를 차용하여 성숙한 사랑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사랑을 위해서는 이별이 필요하다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 이별이 진정한 사랑을 위한 내적 성숙의 과정임을 말하고 있다.

[주제] 이별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강해지는 사랑

[구성]

1~2연	사랑을 위한 이별
3~4연	그리움을 위한 시련과 고독
5~6연	이별 상황에서의 견우와 직녀의 시련
7~8연	재회를 위한 견우와 직녀의 준비

[핵심 한눈에 보기]

견우	• 화자 • 소 기르는 일을 함.	성숙한 사랑을 위한 이별 (역설적 인식)
직녀	• 청자 • 베 짜는 일을 함.	

나 황지우, 「너를 기다리는 동안」

[감상] 이 작품은 사랑하는 이에 대한 절실한 기다림을 안타까운 어조로 표현하고, 만남에 대한 의지를 반복적 표현으로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다. 사랑하는 이가 오기를 수동적인 자세로 기다리던 화자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변모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주제] 기다림의 안타까움과 만남에 대한 희망

[구성]

1~12행	'너'를 기다리며 설렘과 절망을 느낌.
13~22행	'너'와의 만남에 대한 의지를 드러냄.

[핵심 한눈에 보기]

1~12행(수동적 태도)	13~22행(능동적 태도)
'너'를 기다리지만 함.	→ 태도 변화 희망을 가지고 사랑하는 이를 찾아가.

1 표현상의 특징

(가)의 1연에서는 사랑하기 위해서 이별이 필요하다는 역설적 표현을 제시함으로써 이별을 사랑을 위한 성숙의 과정으로 생각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난다. 또한 (나)에서 화자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라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 '너'를 만나겠다는

화자의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 (가)에서는 음성 상징어에 해당하는 의성어나 의태어를 찾아볼 수 없다.
- (나)에서 자연물인 '나뭇잎'이 시어로 등장하지만 특정한 계절적 이미지를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가)의 주된 종결 어미는 '-네'이고, 이는 명사형이 아니다.
- (나)에서는 화자의 인식과 태도가 수동적에서 능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장소를 보면 화자가 한곳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으므로 공간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2 작품의 종합적 감상

보기

옥황상제의 딸로 천상에서 베를 짜는 일을 하던 직녀와 소를 치는 목동 견우는 첫눈에 반해 혼인을 하게 된다. 두 사람은 함께 있는 것이 즐거운 나머지 자신의 일에 소홀하였고, 이에 옥황상제가 노하여 견우는 동쪽으로, 직녀는 서쪽으로 보내 버렸다. 그 후 둘 사이를 은하수로 막아 버리고, 1년에 딱 한 번 음력 7월 7일에만 같이 지내도록 하였다. 그러나 은하수 때문에 그날마저 견우와 직녀가 만나지 못하자, 이를 안타깝게 여긴 까마귀와 까치가 다리를 놓아 두 사람이 만날 수 있게 해 주었다.

(가)에서는 '칠월 칠석'을 기다리며 서로 맡은 일을 충실히 하자는 내용이 제시되었을 뿐 까마귀와 까치가 다리를 놓아 주어 만난다는 설화와 관련된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오답 풀이

- 은하수는 옥황상제가 두 사람이 만나지 못하게 한 장치에 해당한다.
- 화자인 견우는 자신이 있는 '여기'를 '모래밭'이라고 하였고, 직녀에게 '구름 속에서 베를 짜라고 하였다. 따라서 두 사람이 있는 공간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직녀는 베를 짜던 일을 하였으므로 '그대는 베틀에 복을 놀리게.'라는 표현은 맡은 일을 충실히 하라는 의미를 담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 직분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내용은 자신의 일을 소홀히 하다가 이별하게 된 설화의 내용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시어(구)의 의미와 기능

㉞에서는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던 '나'가 능동적으로 태도를 바꾸어 '너에게 간다'고 하였다. 이는 대상의 부재 때문에 절망하여 기다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남에 대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오답 풀이

- 이별의 과정을 통해 내적 성숙을 이룰 수 있다는 역설적 표현에 해당한다.
- '불타는 흙뿔'은 이별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간절한 기다림의 자세를 비유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 '너'에 대한 기다림이 간절하여 아주 작은 소리에도 반응하는 화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마다 기다리던 사람이기를 바라는 태도가 드러나 있는 표현이다.

실전 02 만흥(漫興)

고전 시가

본문 18~19쪽

1 ④ 2 ③ 3 ⑤

개념 확인 문제 1 제6수 2 보리밥 뜻늑물 3 님천 한흥(林泉閑興)

윤선도, 「만흥(漫興)」

[감상] 이 작품은 번잡한 세속을 떠나 자연 속에 묻혀 살면서 느끼는 한가로움과 즐거움을 노래한 총 6수의 연시조이다. 작가가 귀양살이에서 풀려난 뒤 고향에 은거하며 지은 것으로 알려진 이 작품에는 분수를 지키는 소박한 삶에 대한 자부심과 그러한 삶을 가능하게 한 임금의 은혜에 대한 고마움이 잘 드러나 있다.

[주제] 자연에 묻혀 사는 흥취와 임금의 은혜에 대한 고마움

[구성]

제1수	분수를 지키며 자연 속에서 살아감.
제2수	소박한 삶에 만족하며 살아감.
제3수	자연과 더불어 풍류를 즐김.
제4수	자연에 묻혀 사는 삶에 자부심을 느낌.
제5수	자연에서의 삶이 자신의 소임임.
제6수	자연에 은거하게 해 준 임금께 감사함.

[핵심 한눈에 보기]

자연	인간 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류의 공간 • 안빈낙도, 안분지족을 추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속적인 공간 • 부귀공명을 추구함.

1 표현상의 특징

〈제2수〉의 종장 ‘~ 부를 줄이 이시랴.’, 〈제3수〉의 종장 ‘~ 반가움이 이려하랴.’, 〈제4수〉의 초장 ‘~ 만승(萬乘)이 이만하랴.’, 〈제6수〉의 초장 ‘~ 분(分)으로 누엿느냐.’에 설의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표현은 이 시조의 주제인 자연 속에서 느끼는 즐거움과 임금에 대한 고마움을 강조해 준다.

[오답 풀이]

- ① 화자는 감정을 이입하지 않고 자신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② 같은 구조의 문장이 짝을 이루는 대구는 활용되지 않았다.
- ③ 말을 주고받는 대화체 형식이 아니라 주로 화자의 독백으로 이루어져 있다.
- ⑤ 실제로 표현하려는 의도와 반대로 진술하는 반어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2 작품의 종합적 감상

보기

이 작품은 윤선도가 반대파들의 탄핵으로 여러 번의 유배 생활을 한 후, 고향인 해남에 은거할 때 지은 노래이다. 이 당시 그는 명리(名利)를 좇는 정쟁(政爭)에 신물을 느끼며, 혼자 지낼 집을 산속에 ^{명예와 이익을 아울러 이르는 말} ^{정치에서의 싸움} 지은 뒤 문집에 이런 글을 남겼다. “이 집이 나로 하여금 표현히 세 ^{속세를 떠남} 상을 버리고 홀로 신선이 되어 날아가는 뜻을 지니게 하면서도, 끝 ^{자연 속 삶에 대한 자부심} 내는 나로 하여금 부자(父子)와 ^{임금에 대한 신하의 충성} 군신(君臣)의 윤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제3수〉의 ‘혼자 안자’는 속세의 번잡함을 떠나 한가로이 풍류를 즐기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으로, 화자가 귀양살이 때문에 느낀 그리움이나 외로움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없다. 화자는 현재 ‘그리던 님’이 온다 하더라도 느낄 수 없을 만큼 큰 반가움을 자연을 통해 느끼고 있으며, 말하거나 웃지 않아도 못내 좋아할 만큼 만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 ① 〈제1수〉에서 화자가 ‘산수간(山水間) 바회 아래 뉘집’을 짓고 사는 일을 ‘내 분(分)’으로 여기는 것은 남들이 비웃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안분지족하는 태도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는 〈보기〉에서 말한 ‘표연히 세상을 버리고’ 사는 태도와 연결할 수 있다.
- ② 〈제2수〉에서 화자는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한 삶을 즐기는 일에만 관심이 있을 뿐 그 나머지 일, 즉 세속의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한 세속의 일에는 〈보기〉에서 설명한 ‘명리를 좇는 정쟁’처럼 부귀영화의 추구하고 관련된 일들도 포함한다.
- ④ 〈제4수〉에서 화자는 자신의 삶이 ‘삼공(三公)’이나 ‘만승(萬乘)’보다도 낫다며 자연에서의 삶에 대해 자부심을 나타내고 있다.
- ⑤ 〈제6수〉에는 강호에 은거할 수 있도록 해 준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는 〈보기〉에서 말한 ‘군신의 윤리’가 반영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지식 더하기

「산중신곡(山中新曲)」

「산중신곡」은 윤선도가 지은 18수의 연시조를 묶은 일종의 시조 모음집이다. 「만흥(漫興)」은 이 「산중신곡」에 수록된 작품 중 하나로, 윤선도가 병자호란 때 임금이 환도한 즉시 문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귀양 갔다가 풀려나와 해남의 금쇄동(金鎖洞)에 은거할 때 지은 노래이다. 「산중신곡」에는 「만흥(漫興)」 6수, 「조무요(霧霧謠)」 1수, 「오우가(五友歌)」 6수 등이 실려 있다.

3 시어(구)의 의미와 기능

‘님천 한흥(林泉閑興)’은 화자가 자연 속에서 살아가며 느끼는 흥취를 가리키는 반면, ‘인간 만사(人間萬事)’는 그와 상반되는 세속의 일을 의미한다.

[오답 풀이]

- ① ‘뉘집’은 초가집으로 남들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화자가 자신의 분수에 맞는다고 생각하는 소박한 거처이다.
- ② ‘하람’은 화자가 자기를 겸손하게 가리킨 말이고, ‘놈들’은 그런 화자를 비웃는 대상이다. 화자가 분수에 어울린다고 생각한 ‘뉘집’에 대해 ‘놈들’은 초라하다고 비웃으므로 삶의 지향 면에서 둘은 서로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 ③ ‘바회동 뉘구’는 화자가 실컷 노니는 곳이므로 화자가 여유로움을 느끼는 자연 속 풍류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만승(萬乘)’은 세속적 권위와 부를 모두 가진 이를 의미하고, ‘소부 허유(巢父許由)’는 속세를 등지고 살았던 이들이다. 따라서 ‘만승(萬乘)’과 달리 소부 허유(巢父許由)는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적 삶을 살았던 인물들이다.

지식 더하기

「소부(巢父)와 허유(許由)의 고사

소부와 허유는 중국 요순 시대의 인물들이다. 허유는 요(堯) 임금이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자 이를 거절하며 도리어 그 말을 들은 자신의 귀가 더러워졌다고 기산(箕山)의 영수(潁水)에 들어가 귀를 씻고 은거하였다. 한편 소를 몰고 영수 물가에 달은 소부가 이 광경을 보고 그 더러운 물을 소에게 먹일 수 없다며 상류로 올라가 물을 먹었다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것이 소부·허유의 기산영수(箕山潁水)에 얽힌 고사이다.

실전 01 메밀꽃 필 무렵

현대 소설

본문 22~24쪽

1 ② 2 ④ 3 ④ 4 ③

개념 확인 문제 1 달밤 2 젊은 시절 단 한 번의 추억이 깃든 곳이기 때문에 3 개울

[이해석, 「메밀꽃 필 무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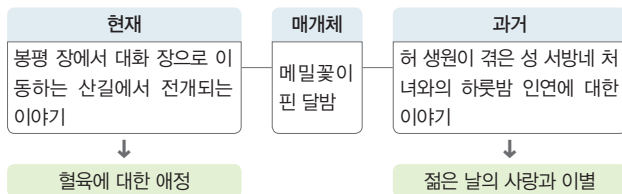
[감상] 이 글은 허생원이 어느 달밤 성 서방네 처녀와 단 한 번의 만남을 가졌던 사건과 봉평 장에서 대화 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통해 장돌뱅이 삶의 애환과 혈육의 정을 그려 낸 작품이다. 공간적 배경을 활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한편 사실적 문체와 향토적 어휘를 구사하는 문체상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메밀꽃이 핀 달밤을 시적으로 묘사한 부분은 낭만적이고 서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주제] 떠돌이 삶의 애환과 혈육의 정

[구성]

발단	봉평 장에서 허생원은 충주집을 두고 동이와 갈등하나 나귀 사건으로 화해하고 함께 길을 떠난.
전개	허생원, 조선달, 동이가 대화 장으로 함께 가는 길에 허생원이 성 서방네 처녀와 맺었던 하룻밤의 정을 이야기함.
절정	동이에게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허생원은 문득 동이가 자신의 아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다가 개울에 빠짐.
결말	허생원은 동이가 원손잡이인 것을 보고 자신의 아들임을 확신함.

[핵심 한눈에 보기]



1 서술상의 특징

허생원과 조선달의 대화를 통해서 허생원의 옛 추억을, 동이와 허생원의 대화를 통해 동이와 동이의 어머니가 겪은 지난날의 사건을 요약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오답 풀이]

- 이 글은 봉평에서 대화로 넘어가는 현재의 이야기와 허생원이 봉평에서의 하룻밤 인연을 다룬 과거가 교차되며 이야기가 서술되고 있다. 그러나 이 때문에 갈등이 심화되지는 않았다.
- 이 글의 사건 전개는 대화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허생원은 동이가 자신의 아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따뜻한 정을 느끼고 있으므로 대결 의식이 중심이 된다는 서술은 글의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다.
- 달밤에 메밀꽃이 핀 배경을 묘사하고 있지만 이는 역동적인 분위기가 아닌 서정적이고 낭만적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 이 글에는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은 드러나 있지 않으며,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드러날 뿐이다.

2 인물의 심리 및 태도

㉞은 동이가 자신의 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에 동이의 어머니가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기를 기대하는 허생원의 심리가 반영된 말이다. 그러므로 성 서방네 처녀일지도 모를 동이의 어머니가 동이의 친아버지를 찾지 않기를 바라는 한 말로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 ㉞은 봉평에서의 일을 회상하는 허생원의 말을 들은 후 조선달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낸 말이다.
- ㉞은 정착을 꿈꾸는 조선달과 달리 성 서방네 처녀를 다시 만나지 않는 장돌뱅이 생활을 계속하겠다는 의미이므로, 유랑하는 삶을 부정하지 않는 허생원의 가치관이 드러난 말로 볼 수 있다.
- ㉞은 동이의 지난 삶을 들던 허생원이 혹시 동이가 자신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동이 어머니에 대해 더 알고 싶어 묻고 있는 말이다.
- ㉞은 허생원이 동이에게 육친으로서의 따뜻한 정을 느껴 동이의 등에 좀 더 얹어 있기를 바라는 심리가 드러나 표현이다.

3 배경의 의미와 기능

[보기]

이해석의 「메밀꽃 필 무렵」은 강원도 봉평에서 대화 장터로 가는 길을 배경으로, 장돌뱅이 허생원의 떠돌이 삶의 애환을 드러내고 있다. 이 소설 속의 배경은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나 시간을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건의 진행과 전체적인 분위기, 주제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기〉에서 배경이 사건을 진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 것처럼, 달밤은 허생원이 과거에 성 서방네 처녀를 만났던 추억을 회상하게 하고 사건 전개에 개연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

[오답 풀이]

- 허생원의 본격적인 과거 이야기가 서술되기 이전에 달이 뜬 것을 보고 '달밤에는 그런 이야기가 격에 맞거든.'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를 통해 인물들이 이때를 선호하는지는 알 수 없다.
- 허생원이 동이에 대해 육친으로서의 따뜻한 정을 느끼고 친밀감을 형성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것은 '개울'이다.
- 대화 장으로 향하는 '칠십 리의 밤길'에서 조선달은 '뚜벅뚜벅 걸기란 여간이래야지'라며 장돌뱅이 삶의 대한 고단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 이 글에 등장하는 세 사람은 모두 떠도는 삶을 사는 장돌뱅이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표출하는 부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4 속담 및 한자 성어

㉞은 허생원이 성 서방네 처녀를 잊지 못하고 그리워함을 드러낸 말이므로, 이는 '자나 깨나 잊지 못함.'을 의미하는 '오매불망(寤寐不忘)'과 관련이 깊다.

[오답 풀이]

- 혈혈단신(孑孓單身)은 '의지할 곳이 없는 외로운 홀몸'을 의미한다.
- 망운지정(望雲之情)은 '자식이 객지에서 고향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을 의미한다.
- 수구초심(首丘初心)은 '여우가 죽을 때에 머리를 자기가 살던 굴 쪽으로 둔다'

는 뜻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르는 말'이다.

⑤ 망양지탄(望洋之嘆)은 '큰 바다를 바라보며 하는 한탄이란 뜻으로, 어떤 일에 자기 자신의 힘이 미치지 못할 때에 하는 탄식을 이르는 말'이다.

실전 02 이생규장전

고전 소설

본문 25~27쪽

1 ⑤ 2 ④ 3 ⑤ 4 ③

개념 확인 문제 1 흥건족의 난 2 만남과 이별의 반복 구조 3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 김시습, 「이생규장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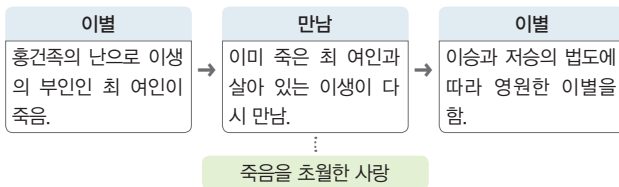
[감상] 이 글은 김시습의 『금오신화』에 수록된 다섯 편의 소설 중 하나로,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간절한 사랑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흥건족의 난을 중심으로 글의 전반부에는 이생과 최 여인이 혼인하기 전까지의 사실적인 내용을, 후반부에는 죽은 아내와 이생의 만남이라는 비현실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시련을 극복하고 죽음을 초월한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 남녀 간의 지극한 사랑이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또한 인물들의 만남과 이별의 반복은 두 사람의 사랑을 애뜻하게 느끼게 하며, 마지막 이별 장면을 더 비극적으로 만드는 효과를 주고 있다.

[주제]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애절한 사랑

[구성]

발단	이생과 최 여인이 만나 서로 사랑에 빠짐.
전개	부모의 반대를 극복하고 혼인을 함.
위기	흥건족의 난이 일어나 최 여인이 죽음.
절정	살아 있는 이생과 죽었던 최 여인이 환생하여 재회함.
결말	최 여인과의 이별 이후 이생이 최 여인을 그리워하다 생을 마감함.

[핵심 한눈에 보기]



1 서술상의 특징

여인은 백 년 후에 함께 세상을 떠나자는 이생의 말에 저승에는 명부가 있어 돌아가야 한다면 안타까운 이별을 고하고 있다. 이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잠시 이승에 머물 수는 있지만 결국은 저승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작가의 생사관을 드러낸다. 따라서 작가가 사후 세계를 부정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에서는 비극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생과 최 여인이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고 결말에서 최종적인 이별을 하도록 구성하고 있다.

② '신축년에 흥건적이 서울을 점령하니'라고 하여 흥건족의 난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설정함으로써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③ 이 글은 이생과 환생한 여인 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며, 여인이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이생에게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④ 이 글은 서술자가 사건의 정황과 인물의 심리까지 모두 알고 서술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고 있다.

2 인물의 심리 및 태도

'노래'는 여인이 저승으로 돌아가며 이생과 헤어지는 상황에서 부르는 것이므로 임과 이별하는 슬픔을 드러내는 ④가 가장 잘 어울린다.

[오답 풀이]

① 임이 오기 어려운 상황에서 임을 기다리는 안타까운 심정이 드러난 서경덕의 작품이다.

② 임에 대한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 자연물에 빗대어 노래하고 있는 황진이이 작품이다.

③ 겨울 동짓달의 긴 밤을 잘라서 짧은 봄밤에 이어 붙여 봄밤을 사랑하는 임과 길게 보내고 싶다는 심정을 노래한 황진이의 작품이다.

⑤ 신사임당이 고향 강릉에 늙으신 친정어머니를 홀로 두고 떠나는 슬픔을 노래한 작품이다.

3 작품의 종합적 감상

이 글에서는 현실에서 좌절된 이생의 사랑을 여인의 환생으로 이어 가게 함으로써 이들의 사랑과 이별을 더욱 애뜻하고 절실하게 그려 내고 있다. <보기>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러한 비현실적인 전기적 요소는 작가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구현하여 살아 있는 남녀의 사랑보다 강렬한 인상을 준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에서는 여인이 환생하여 살아 있는 이생과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것만 드러나 있을 뿐, 당대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여인이 죽었다가 환생하여 이생과 재회하지만 이것은 죽음을 초월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지 윤치 사상을 전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③ 이생과 여인의 이야기는 덧없는 인생의 무상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초월한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④ 이생과 여인이 죽음으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것은 초자연적 현상이지만 두 사람의 사랑에 주목하여 서술하고 있을 뿐, 이승과 저승이 하나가 되는 초자연적 현상을 표현한 부분은 없다.

4 속담 및 한자 성어

㉠은 여인과 행복하게 지냈던 지난날이 꿈과 같이 느껴진다는 것으로 '한바탕의 봄꿈처럼 헛된 영화(榮華)나 덧없는 일'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일장춘몽(一場春夢)과 관련이 깊다.

[오답 풀이]

① 망양보뢰(亡羊補牢)는 '양을 잃고 우리를 고친다는 뜻으로, 이미 어떤 일을 실패한 뒤에 뉘우쳐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이르는 말'이다.

② 어불성설(語不成說)은 '말이 조금도 사리에 맞지 아니함'을 의미하는 말이다.

④ 회자정리(會者定離)는 '만난 자는 반드시 헤어짐'을 의미하는 말로 모든 것이 무상함을 나타낸다.

⑤ 상전벽해(桑田碧海)는 '뽕나무밭이 변하여 푸른 바다가 된다는 뜻으로, 세상 일의 변천이 심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실전 01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현대 소설

본문 30~32쪽

1 ② 2 ② 3 ⑤

개념 확인 문제 1 아내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2 권 씨의 자존심을 지켜 주기 위해 3 자존심

윤홍길,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감상] 이 글은 1970년대 산업화·도시화 시대를 배경으로 한 중편 소설이다. 주인공인 권 씨는 성남시의 택지 개발이 시작될 무렵 집을 장만할 요량으로 철거민의 입주권을 샀지만, 당국의 불합리한 조치에 좌절을 겪고 우연히 이에 항의하는 시위에 휘말려 전과자가 된 인물이다. 이 글은 이처럼 선량한 소시민이던 권 씨가 '나'의 집에 세 들어 살다 복면강도가 된 사연과, 자신의 정체가 탄로 나자 몰락한 지식인의 자존심을 상징하던 아홉 켄레의 구두를 남기고 행방불명된 사건을 통해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도시 빈민의 고달픈 삶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주제] 산업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의 어려운 삶

[구성]

발단	권 씨가 '나'의 집 문간방에 전세로 입주함.
전개	권 씨가 전과자가 된 사연과 구두에 대한 그의 정성을 알게 됨.
위기	아내의 병원비를 빌리려는 권 씨의 청을 거절했다가 '나'의 마음이 바뀌어 권 씨가 모르게 도움을 줌.
절정	권 씨가 '나'의 집에 침입해 어설픈 강도질을 하다 자존심만 상한 채 집을 나감.
결말	권 씨가 아홉 켄레의 구두만 남기고 행방불명됨.

[핵심 한눈에 보기]

권 씨	→	• 소외된 도시 빈민 • 강도질을 하다 자존심이 상해 구두를 남기고 행방 불명됨.
• 선량한 소시민 • 구두를 통해 대하 졸업자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며 생활함.		
↑ 관찰, 연민		
'나'	• 서술자	• 선량한 소시민

1 서술상의 특징

<중략> 이후의 문단에서 '구두코가 유리알처럼 반짝반짝 닦여져 있는 한 자존심은 그 이상으로 광발이 울려져 있었을 것이며,'를 통해 '구두'는 지식인인 권 씨의 자존심을 상징하는 소재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나'가 권 씨의 문간방을 살펴보았을 때, 열 켄레의 구두 중 비어 있는 한 켄레의 구두를 보고 그 구두가 쉽게 돌아오지 않을 것을 깨달았다는 내용을 통해 권 씨가 가솔하여 돌아오지 않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중략> 이후의 문단에서 '구두코가 유리알처럼 반짝반짝 닦여져 있는 한 자존심은 그 이상으로 광발이 울려져 있었을 것이며,'를 통해 '구두'는 지식인인 권 씨의 자존심을 상징하는 소재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나'가 권 씨의 문간방을 살펴보았을 때, 열 켄레의 구두 중 비어 있는 한 켄레의 구두를 보고 그 구두가 쉽게 돌아오지 않을 것을 깨달았다는 내용을 통해 권 씨가 가솔하여 돌아오지 않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이 글에서는 서술자와 권 씨의 대화를 그대로 인용하여 제시하거나 서술자의

행동과 장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여 줄 뿐 요약하여 제시하지 않았다.

④ <중략> 이후에서 권 씨가 행방불명된 것을 확인하며, '나'가 권 씨에게 한 행동을 후회하는 서술자의 내면이 드러나 있다. 그러나 이때의 서술은 과거형 어미를 주로 사용하여 권 씨의 빈곤한 처지와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⑤ 이 글의 주인공은 권 씨이며, 등장인물인 '나'가 권 씨의 처지와 사건을 관찰하며 서술하고 있다.

2 배경의 의미와 기능

㉠은 '나'가 권 씨의 정체를 눈치채자 이에 자존심이 상한 권 씨가 자신의 학력을 밝히면서 마지막 자존심을 내세우고 간 곳이다. 이러한 공간적 배경은 권 씨의 상한 자존심이 회복될 수 없으며 앞으로의 권 씨의 삶이 고단하고 암담할 것임을 암시한다.

오답 풀이

- ① 권 씨는 현실에 대한 불신감으로 '나'와의 대화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이 갈등을 조장하거나 긴장감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권 씨는 자신의 학력을 내세워 자존심을 내세우는 소외된 지식인으로, 강도질을 하다가 자신의 정체가 탄로 난 것에 대해 자존심이 상해 집을 나가고 있으므로 극복 의지가 드러난다고 볼 수 없다.
- ④ 이 글의 권 씨와 '나'는 동시대를 사는 소시민으로 ㉠은 권 씨의 미래가 어두움을 암시하고 있을 뿐 그들이 사는 환경이 열악함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 ⑤ ㉠은 권 씨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라기보다 소심하고 순진한 권 씨가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향한 부정적인 곳이다.

3 작품의 종합적 감상

보기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에는 무기력한 소시민들에게 일어나는 '감시와 배척'이라는 사회적 폭력 양상이 나타난다. 권 씨는 시위 주동자라는 혐의를 받고 당국의 감시 때문에 직장에서 실직을 정당 택지 개발 시기에 발생한 시위 당하고 집단으로부터 사회에 악을 끼친 인물로 낙인 찍혀, 감시와 배척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사회적 폭력으로 인해 권 씨는 사회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이웃에게 소외당하며 정신적인 파멸을 겪게 된다. 그는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분적 정체성을 드러냄으로써 자신이 마땅히 존중받아야 함을 주장하며 고립감에서 해방되기를 원하고 있으나, 사람들은 오히려 그를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퇴행적인 인간으로 평가한다.

'나'는 어설픈 강도질을 하다 식칼을 떨어뜨린 '권 씨'에게 식칼을 돌려 주며 "연장을 이렇게 함부로 굴리는 걸 보니 당신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 만합니다."라고 말하며 여유를 드러낸다. 이러한 '나'의 말하기에 "도둑맞을 물건 하나 제대로 없는 주제에 이죽거리긴!"이라고 말한 것은 권 씨가 자신이 떨어뜨린 칼을 '나'에게서 돌려받은 것에 자존심이 상해 한 말이지, 자신을 퇴행적 인간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에게 항변한 말이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난 이제 아무도 안 믿어!'라고 사회를 불신하는 권 씨의 말을 통해 그가 감시와 배척이라는 사회적 폭력을 당해 온 피해자임을 알 수 있다.

② 권 씨가 강도질을 하는 것은 아내의 수술비를 구하기 위해 '나'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거절당했기 때문이므로, 권 씨의 행위는 <보기>에 제시된 이웃으로부터 소외당했다고 느끼는 정신적 파멸이 일으킨 행위에서 비롯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③ 권 씨가 자신이 대학을 나온 사람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자신을 감시하고 배척하는 사회에 대해 자신의 신분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행위이다. <보기>에서는 권 씨의 이러한 행동이 오히려 사람들이 권 씨를 퇴행적인 인간으로 평가하도록 만든다고 하였지만 권 씨 자신은 이를 통해 자신이 마땅히 존중받아야 함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어떤 이웃이 도와주었을 수도 있다는 '나'의 말에 "그따위 이웃은 없다는 걸 난 똑똑히 봤어"라는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권 씨의 말은 <보기>에서 설명했듯이 이웃에게 소외당하고 사회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했기에 보일 수 있는 반응이다.

실전 02 유충렬전

고전 소설

본문 33~35쪽

1 ① 2 ① 3 ⑤ 4 ④

개념 확인 문제 1 금산성 2 옥새 3 도성에 살기가 가득하고 천자의 자미성이 변수 가에 비쳐 있어서

| 작자 미상, 「유충렬전」 |

[감상] 이 글은 영웅적인 주인공의 일대기를 그린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영웅 소설로, 연대와 작가가 알려져 있지 않다. 40여 종이 넘는 판본이 전해지고 있으며, '고귀한 혈통, 성장 과정에서의 시련과 극복, 영웅적 투쟁과 승리'로 이어지는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을 취하여 유충렬의 활약을 흥미롭게 전개하고 있다. 또한 이 글은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항복하고 신(臣)의 예를 행하기로 한 사건을 반영하여 그때의 고통과 패배 의식을 글을 통해 심리적으로 극복하려는 의도를 보여 주고 있다.

[주제] 삶의 고난을 극복하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는 유충렬의 영웅적 활약

[구성]

발단	부모가 산천에 기도하여 신이한 태몽을 꾸 후 얻은 고관의 외아들로 태어남.
전개	간신 정한담에 의해 죽을 고비에 처하지만 강희주를 만나 그의 사위가 되고, 도승을 만나 도술을 배움.
위기	정한담이 호적과 결탁하여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됨.
절정	천자가 정한담에게 항복할 즈음 충렬이 천자를 위기에서 구하고 반란군을 사로잡으며, 유심과 강희주도 구해 냄.
결말	충렬은 헤어졌던 어머니와 아내를 다시 만나고 높은 벼슬에 올라 부귀영화를 누림.

[핵심 한눈에 보기]

유충렬	정한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상계의 자미성, 지상계의 선인 어릴 적 정한담에게 살해될 위기에 처함. 천자를 위기에서 구해 내고 부귀영화를 누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상계의 악성, 지상계의 악인 유충렬을 죽이려 하고, 나라를 위기에 빠뜨림. 천자를 사로잡아 옥새를 뺏으려 다 실패함.

이원적
구성

1 서술상의 특징

이 글의 서술자는 비룡이 조화를 부리며 날아가는 부분이나 유충렬이 위험에 처한 천자를 구하러 가는 모습, 정한담 앞에 유충렬이 나타난 상황 등에서 작품에 직접 개입하여 사건에 대한 주관적인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② 이 글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 일어나는 사건을 순차적으로 배치하여 제시하고 있다.

③ 이 글에는 유충렬의 말만 천사마가 하늘을 날 뿐만 아니라 순식간에 몇 천리를 가는 부분에서 비현실적인 요소가 드러나 있다. 이러한 비현실적인 요소의 사용은 오히려 사건을 속도감 있게 전개하는 효과를 주고 있다.

④ 이 글의 서술자는 작품 밖에서 인물의 행동뿐 아니라 심리까지 묘사하고 있어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고 있다.

⑤ 이 글에서 천자는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변변한 대응도 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유충렬이 이런 무능력한 천자와 대비되는 비범한 능력을 지닌 인물이지만 초월적 존재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 인물의 심리 및 태도

정한담은 자신을 영웅으로 표현하고, 황제가 되기 위해 십 년을 공부했다며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한편 천자에게 옥새를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정한담은 자신이 황제가 될 운명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인정에 호소하지는 않았다.

③ 제시된 부분에서 정한담은 관용적 표현을 인용하지 않았으며 옥새를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있다.

④ 정한담이 천자를 배려하는 부분은 제시되지 않았다.

⑤ 불가능한 상황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이 뛰어남을 강조하고 있다.

3 작품의 종합적 감상

[보기]

「유충렬전」은 '고귀한 혈통과 기이한 출생 → 어린 시절의 시련 → 조력자와의 만남 → 성장 후 시련과 신이한 존재의 도움 → 영웅적 투쟁과 승리'로 이어지는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을 취하고 있는 대표적인 군담 소설이다. 이 작품의 창작 연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주인공이 전쟁에서 영웅적 활약을 하는 내용을 그린 소설이지만 병자호란 당시 '인조'의 굴욕적인 항복으로 인한 청에 대한 인조가 삼전도에서 청나라에 항복하며 신(臣)의 예를 행하기로 함. 민중들의 적개심을 반영하여 소설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적강** 모티프를 사용하여 천상계에서의 싸움이 지상계에서 인물 간의 갈등으로 새롭게 구현되는 이원적 구조를 보여 주고 있다.

유충렬이 위기에 처한 천자를 구해 내고 오락개를 무찌르는 이야기는 병자호란 때 당한 역사적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내용 전개는 당시에 조선이 당한 굴욕적인 수모를 씻어 내고 통쾌한 감정을 느끼면서 민족적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민중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실제로 청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유충렬이 강희주를 만나 그의 사위가 된 것은 영웅 소설의 구조 중 조력자를 만난 것에 해당한다.
- ② 정한담은 어린 시절 유충렬을 죽이려 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대립하는 악인으로, 유충렬과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 있으면서 나라를 위기에 빠뜨림으로써 유충렬이 자신의 비범한 능력을 부각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인물이다.
- ③ 유충렬과 정한담은 본래 천상계에서도 대립하였으며 지상계에서도 선인과 악인의 대결 구도를 이루며 대립적 관계를 보이고 있다.
- ④ 유충렬의 아버지가 모함을 받아 귀양을 가고, 화재로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은 영웅 소설의 구조 중 어린 시절의 시련에 해당한다.

지식 더하기

적강 소설

적강은 '선선이 인간 세상에 내려오거나 사람으로 태어남'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천상계에서 내려온 인물이 지상계에서 겪는 사건을 다룬 이야기가 적강 소설임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적강 소설은 주인공이 천상계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지상계로 내려와 인간들이 겪는 어떤 문제(보통은 나라의 위기)를 해결하고 다시 천상계로 돌아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강 소설에서는 천상계에서의 질서가 지상계에서도 적용되기 때문에 천상계에서 주인공과 대립하던 인물은 지상계에서도 주인공을 위협하는 인물로 나타난다. 또한, 주인공은 보통 비범한 능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러한 점에서도 주인공이 천상계의 인물이었음이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4 배경의 의미와 기능

㉠은 천자가 옥새를 가지고 도망가다 정한담에게 잡힌 장소이지 천자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충렬과 만나기로 약속한 곳이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국한이 군사 십만 명과 함께 금산성을 공격하자 유충렬도 적진을 향해 맞서 싸웠다.
- ② 정한담은 유충렬을 금산성으로 유인하여 도성에 천자만 남도록 하려는 계략을 세웠다.
- ③ 변수 가는 천기를 살펴 천자의 위기를 알아챈 유충렬이 서둘러서 도착해야 할 곳이다.
- ⑤ 금산성에서 변수 가로 이동할 때 유충렬은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천사마의 도움으로 순식간에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5

실전 01 페이스메이커

시나리오

본문 38~39쪽

1 ② 2 ④

개념 확인 문제 1 페이스메이커 2 등록금 3 마라톤 완주를 하기 위해

| 정현우, 「페이스메이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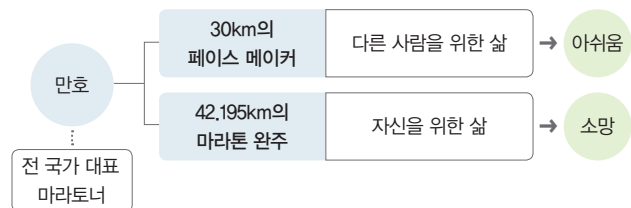
[감상] 이 작품은 동생의 뒷바라지와 생계를 위해 페이스메이커로 활동해야 했던 한 마라토너의 마라톤 완주 도전을 그리고 있다.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살아왔던 주인공이 자아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마라톤 완주를 해내는 모습을 통해 사람들에게 잊고 살았던 꿈과 희망에 대해 되돌아보게끔 하는 작품이다.

[주제] 자아실현을 위한 마라토너의 완주 도전과 성취

[구성]

발단	과거 국가 대표 마라톤 선수였던 만호는 가난하지만 동생에게 폐를 끼치지 않다는 생각에 친구 중수네 집에 얹혀 지내며 치킨 배달 일을 하며 살고 있음.
전개	만호는 과거의 스승이었던 박성일 감독의 제안으로 올림픽 금메달 유망주 민윤기의 페이스메이커를 하기로 결정하고 선수촌으로 들어가 훈련함.
절정	훈련 도중 자신의 다리에 이상이 생긴 것을 알게 된 만호는 인생에서 마지막 마라톤은 자신을 위해 완주하겠다고 선수촌을 나감.
하강	만호는 열심히 훈련하여 마라톤 경기에 참가하지만 다리 부상으로 중도에 포기하게 되고,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쳐 다시 페이스메이커로 선수촌에 들어감.
대단원	페이스메이커로 런던 올림픽에 참가한 만호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마무리하는 순간에 자신의 경기를 보러 온 동생의 응원을 보고, 한계를 극복하여 마라톤 완주를 끝냄.

[핵심 한눈에 보기]



1 형상화 방식

S# 57에서 만호는 춘천 마라톤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냈다. 또한 겨울에는 동계 훈련을 하지 않는 편이 좋다는 말을 의사가 박성일 감독에게 하는 것을 듣는다. 이는 만호가 마라톤 선수로서 위기를 겪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춘천 마라톤 이후의 장면에서는 자신감이 넘치는 태도가 아니라 의기소침한 태도를 보이고, 겨울의 병원 장면에서는 마라톤 선수를 계속하고 싶어 하는 간절한 심정이 드러나도록 연기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S# 55와 S# 58은 현재 일어나는 일이고, S# 57은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므로 차이를 두기 위해 흑백으로 처리하는 것도 적절하다.
- ③ S# 57은 S# 58보다 오래 전에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등장인물 또한 젊은 모습을 하고 있어야 한다.
- ④ S# 57은 선수 대기실과 병원이라는 두 공간이 제시되는데, 시간적 배경은 가을과 겨울이므로 등장인물의 의상을 통해 계절의 변화를 드러내는 것이 적절하다.
- ⑤ S# 58에서 만호가 동생을 위해 페이스메이커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S# 57에서 동생 성호의 대학 합격증은 이러한 사실을 암시하는 소재이므로 확대해서 보여주는 것이 적절하다.

지식 더하기

주요 시나리오 용어

- S#(Scene Number) : 장면 번호
- F.I.(Fade In) : 화면이 점차 밝아지는 것으로 영화가 시작되는 단계에서 많이 씬.
- F.O.(Fade Out) : 화면이 점차 어두워지는 것으로 영화가 끝나는 단계에서 많이 씬.
- NAR(Narration) : 내레이션. 해설. 화면 밖에서 설명함.
- O.L.(Overlap) : 한 화면이 없어지기 전에 다음 화면이 천천히 나타나는 것을 뜻함.
- Ins.(Insert) : 인서트. 신문 잡지 따위를 화면에 삽입하는 것을 말함.
- C.U.(Close Up) : 인물이나 사물의 일부분을 크게 찍는 것을 말함.
- PAN.(Panning) : 팬. 장면 전체를 상하, 좌우로 촬영하는 것을 말함.
- E.(Effect) : 효과음

2 작품의 종합적 감상

페이스메이커가 우승이 유력한 선수를 위해 희생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을 전체를 위해 소수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가치관과 직접적으로 연관 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만호는 다른 사람의 우승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서라도 마라톤을 하고 싶고, 대학에 합격한 동생의 등록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는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박성일 감독은 만호가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밖에 할 수 없다고 말하며 더 큰 욕심을 가지지 말라고 설득하고 있다.
- ② 선수를 그만둔 후의 경제생활을 보장해 주겠다는 뜻을 던지시 내비치며 만호가 선수촌을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
- ③ 아픈 것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안 아프겠다고 하는 말에서, 운동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만호의 절실함을 알 수 있다.
- ⑤ 만호는 페이스메이커로서 남을 위해서 30km 지점까지 달렸을 뿐, 그 이상의 거리인 12.195km를 달리지 못했다. 따라서 ㉠은 자신을 위해서 달린 적이 없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지식 더하기

마라톤

기원전 490년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에서 그리스의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 병사가 40km나 되는 거리를 달린 일화에서 유래한 것으로, 총 42.195km를 달리는 장거리 육상 경주이다. 도로를 달리는 경기이기 때문에 더위나 공기 오염도, 오르막 및 내리막길 등의 정도에 따라 경주 조건이 달라지므로 이를 잘 극복해야 한다. 오늘날의 코스는 크게 편도 코스, 왕복 코스, 순환 코스 등으로 구분된다.

실전 02 특급품

현대 수필

본문 40~41쪽

1 ④ 2 ③

개념 확인 문제 1 유연성 2 비자반 3 인격, 사랑, 생활

| 김소운, 「특급품」 |

[감상] 이 작품은 작은 균열을 스스로 유착할 수 있는 비자반의 유연성에 대해 설명하며 사람들의 삶의 태도도 그러한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비자반을 사람의 인생이라고 할 때, 비자반에 생긴 균열은 인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실이라고 할 수 있다. 글쓴이는 인간이 이러한 과실에 좌절하지 말고 이를 딛고 일어서야만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주제] 과실을 극복하려는 유연한 태도의 필요성

[구성]

처음	비자반 특급품에 대한 소개
중간	상처 난 비자반이 특급품이 되는 과정과 인생의 과실
끝	과실을 딛고 일어서는 인생에 대한 긍정

[핵심 한눈에 보기]

비자반	균열이 생긴 비자반을 그대로 두면 목침감이 되지만, 균열을 제 힘으로 유착한 비자반은 1급품보다 높은 특급품이 됨.
↓ 유추	
인간	과실에 좌절하지 말고 극복함으로써 성숙한 인격, 사랑, 생활 등을 얻을 수 있음.

1 서술상의 특징

흥터 없이 완전무결한 물건이 높은 값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사람들의 통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글은 머리카락 같은 가느다란 흥터가 있는 비자반이 1급품보다 더 높은 특급품 취급을 받는다는 내용을 제시하여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이 글은 비자반에 균열이 생겼다가 제힘으로 도로 유착·결합한 것을 '졸업 증서'라고 비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부분은 제시되지 않았다.
- ② 이 글에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이나 움직임을 흉내 낸 말인 의태어는 제시되지 않았다.
- ③ 이 글에서 '계절이 바뀌고 추위, 더위가 여러 차례 순환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계절의 변화를 나타낸 것일 뿐이며 계절의 변화에서 유발되는 상념을 서술하지는 않았다.
- ⑤ 과거나 현재를 비교하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으며, 현대 사회나 현대인들을 비판하기보다는 사람들이 갖춰야 할 태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2 글쓴이의 관점 및 태도

이 글에서 '사고란 어느 때 어느 경우에도 별로 환영할 것이 못 된다.'라고 하였고, 이에 해당하는 인간의 과실에 대해서 '예찬할 것이 아니요, 장려할 노릇도 못 된다.'라고 하였으므로 불측의 사고, 즉 사람의 과실을 반갑게 맞이해야 한다는 것은 글쓴이의 관

점으로 보기에 적절하지 못하다.

오답 풀이

- ① 공인된 어느 인격, 어떤 학식, 지위에서도 과실을 범치 않는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으며 인간은 누구나 과실을 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 ② 제 과실과 제 상처를 제힘으로 다스리는 비자반의 탄력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도 과실을 범하더라도 제 스스로 이겨 낼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 ④ 비자반의 특성을 이야기한 후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인생이 바둑판만도 못하다고 해서야 될 말인가.'라고 하여 인간도 자신의 과실을 유연성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주고 있다.
- ⑤ 글쓴이는 균열의 성질 여하에 따라서 1급품 바둑판이 목침감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또한 과실로 해서 더 커 가고 깊어 가는 인격이 있지만 어느 과실에도 적용된다는 것은 아님을 지적하고 있다.

지식 더하기

비자반(櫃子盤)

비자반은 윗면을 비자나무 판자로 대어 만든 바둑판을 말한다. 이때 비자 나무는 수령이 700년 이상 되는 것을 잘라 약 7년 가량 그늘에서 말린 후 판을 깎아 만들기 때문에 귀하고 값이 비싼 편이다. 또한 이러한 비자나무의 결은 실처럼 가는 것일수록 좋다는 평가를 받으며, 힘을 주어 바둑돌을 놓으면 그 부위가 움푹 패었다가 얼마 지나면 반면이 원상태로 회복된다는 특성이 있다.



실전 01 소박과 장식의 역사 조선백자

예술

본문 46~48쪽

1 ① 2 ④ 3 ③ 4 ①

개념 확인 문제 1 검박함을 추구하고 사치를 배격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2 수분 3 청화 백자

| 방병선, 「소박과 장식의 역사 조선백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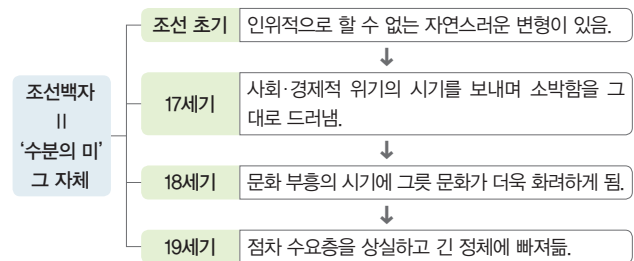
[해제] 이 글은 조선백자의 특징과 변화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이 글은 검박함을 추구하고 사치를 배격하기 위해 조선이 순백자를 왕실용 그릇으로 선정하였다고 하며 완벽하지 않은 조선백자를 '수분의 미' 그 자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조선 초기 인위성이 없던 조선백자의 특징, 17세기 사회·경제적 위기 시기의 조선백자의 특징, 18세기 문화 부흥 시기의 조선백자의 특징, 19세기 말 조선의 쇠망과 함께 정체에 빠진 조선백자의 특징을 순서대로 제시하고 있다.

[주제] 조선백자의 특징과 변화 과정

[구성]

1문단	조선백자를 왕실용 그릇으로 선정한 배경
2문단	조선백자의 수분의 미
3문단	조선 초기 인위성이 없던 조선백자의 특징
4문단	17세기 사회·경제적 위기 시기 조선백자의 특징
5문단	18세기 문화 부흥 시기 조선백자의 특징
6문단	19세기 말 조선의 쇠망과 함께 정체에 빠진 조선백자

[핵심 한눈에 보기]



1 전개 방식의 특징

이 글에서는 각 시대별로 주를 이루었던 조선백자의 종류를 언급하고 있으나 용도에 따라서 분류하여 제시하지는 않았다.

오답 풀이

- ② 이 글에서는 조선 초기부터 19세기 말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조선백자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③ 이 글의 3문단에서는 편병의 예를 들어 자연스럽게 변형이 발생한 조선백자의 형태적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 ④ 이 글의 6문단에서는 19세기 말 관요가 민영화되고 백자 생산 공장들이 시장 경쟁에서 뒤처지면서 수요층을 상실하게 된 조선백자가 긴 정체의 터널에 빠져들고 말았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조선백자가 정체에 빠지게 된 과정을 인과적으로 서술한 것이다.

⑤ 이 글의 2문단과 3문단에서는 중국이나 일본의 백자와 조선백자의 색과 형태의 차이를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다.

2 세부 정보 확인

4문단의 내용을 통해 철화 백자에 용이나 호랑이 문양을 해학적으로 그린 것은 알 수 있다. 하지만 용이나 호랑이 문양은 왕실의 표상이기 때문에 사대부의 품격을 높여 주기 위해 이것을 그렸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 ① 5문단의 숙종 시대에 들어 민간에도 백자 사용을 허용하면서 수요층이 확대되었다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 ② 6문단의 '조선 시대 임금을 포함한 선비들은 500년 역사를 이끌며 왕실을 표방하는 품격의미를 지향하는 백자의 소비층이자 후원자였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③ 4문단의 17세기 들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며 사회·경제적 위기의 시기를 보내야 했기 때문에 왕실용 백자 생산도 여의치 않았다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 ⑤ 1문단의 조선의 위정자들은 사기와 칠기 사용을 권장하면서 검박함을 추구하고 사치를 배격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였는데, 이것은 세종 시대에 와서 순백자를 왕실용 그릇으로 선정한 배경이 되었다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3 수용 및 해석의 적절성 평가

2문단의 '이는 우리의 백자 원료가 중국이나 일본과 달라 완벽히 하얗게 만들기 힘들고 불 속에서도 제 모양으로 버티기 어렵기 때문이었다.'를 통해서 우리 원료 때문에 항아리 표면이 완벽하게 하얗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⑤ 4문단에서 구연부가 제대로 원을 이룬 것을 찾아보기 불가능하고 배 한 가운데에 영락없이 상하를 접합한 흔적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은 가공과 장식을 거부하고 소박함 그대로를 드러낸 '수분의 미'와 관련된다고 하고 있다.
- ② 2문단에서 조선 시대에 휘기도 한 그릇이 제작된 것은 우리 백자 원료가 불 속에서 제 모양으로 버티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 ④ 2문단에서 점과 움푹 파인 곳과 같은 약점을 오히려 표면에 내세운 것은 조선 선비들이 지향한, 즉 자신의 분수를 아는 지혜와 상통하는 '수분의 미' 그 자체라고 하고 있다.

4 정보 간의 관계 추론

4문단에서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며 사회·경제적 위기 시기를 보낸 17세기에 고가의 안료를 중국에서 사 와야 하는 청화 백자의 생산을 중단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철화 백자를 생산하였다고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화 백자에 비해 ㉡철화 백자의 재료비가 많이 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② ㉠청화 백자는 조선 초기에 주를 이루었고, ㉡철화 백자는 17세기 들어 청화 백자를 대체하여 제작되었다는 내용을 통해, ㉡철화 백자에 비해 ㉠청화 백자가 더 오래 전에 주를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 ③ ㉡철화 백자에 왕실 표상인 용이나 호랑이 등이 그려졌다고 하였으므로 철화 백자가 왕실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④ 청화 백자의 뜻이 흰 바탕에 푸른 물감으로 그림을 그린 자기라는 것과 철화 백자에 매죽문, 포도문, 용, 호랑이 등이 그려져 있다는 내용을 통해, ㉠청화 백자와 ㉡철화 백자 모두 문양을 넣었음을 알 수 있다.

- ⑤ 청화 백자가 양식적으로 중국 명나라 백자를 많이 참고하였다는 내용을 통해
- ㉠청화 백자를 독창적인 그릇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전 02 자영농층의 확충과 상업적 농업의 대두

인문

본문 49~51쪽

1 ③ 2 ③ 3 ② 4 ④

개념 확인 문제 1 상업적 2 임원경제지 3 연초, 면화

「강대만·한규철·김인호, 『자영농층의 확충과 상업적 농업의 대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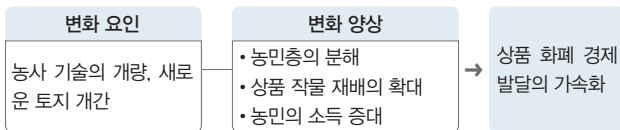
[해제] 이 글은 조선 후기에 상업적 농업이 나타나고 발전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조선 후기에는 농사 기술이 발달하고 새로운 토지가 개간되자 생산력이 증대되어 상업적 농업이 대두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농민 계층이 분화되고 특수 작물의 재배가 늘어났으며 도시 근교에서도 상업적 농작물을 재배하여 소득 증대에 기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농업의 변화는 상품 화폐 경제의 발전을 가속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글쓴이는 당대의 실학자들이 쓴 책의 내용을 자료로 제시하며 이와 같은 조선 후기 사회의 변화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주제] 농업 생산력 증대로 인한 조선 후기 경제 활동의 변화

[구성]

1문단	조선 후기 농업의 변화로 인한 경제 활동의 변화
2문단	조선 후기 농민의 상품 생산 활동으로 인한 장터의 변화
3문단	소득 증대 작물인 연초(담배) 재배의 확대
4문단	조선 후기 연초의 유통 상황
5문단	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특수 작물의 재배

[핵심 한눈에 보기]



1 세부 정보 확인

2문단에는 큰 장이 형성되면서 주변의 장을 흡수하거나 주변 장이 소멸되어 큰 마을의 장터 수는 줄어들었으나, 중소 규모의 마을에서는 오히려 장이 신설되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오답 풀이]

- ① 농사 기술이 발전되면서 생산량이 늘어나 상업적 농업이 등장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인과 관계를 반대로 설명하였다.
- ② 상업적 농작물이 다른 것에 비해 이득이 많았으나 이 중에서 면화의 이득이 가장 많았는지는 알 수 없다.
- ④ 부농층이 형성되었지만 이들의 신분은 국가에서 인정해 주었다는 내용은 이 글에서 찾을 수 없다.
- ⑤ 농업 고용인이나 비농업 인구가 증가하였다고 언급하고 있을 뿐, 농촌 인구가 늘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또한, 연초 생산이 늘어난 이유는 국내 수요의 증가와 청나라에 수출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2 구체적 사례에 적용

〈보기〉에서 ㉓는 시대가 바뀌면서 재배 면적이 증가하는 작물이고, ㉔는 반대로 그 수가 감소하고 있는 계층이다. 5문단에서 면

화는 처음에는 남부 지방에서만 재배되던 것이 거의 전국적으로 재배되기 시작했다고 하였다. 따라서 ㉓의 사례로는 면화가 적절하다. 그리고 1문단에서 조선 후기에는 농민층의 분해가 촉진되었다며, 농업 고용인이나 임금 노동자가 늘어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결국 자작농이 줄어든 것을 의미하므로, ㉔의 사례로는 자작농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㉓ 상업적 작물이나 특수 작물인 연초, 약재, 미나리 등은 생산량이 늘어났으므로 재배 면적 또한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벼는 상업적 작물이 아니므로 재배 면적이 축소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㉔ 농민층의 분화로 인해 부농, 상인, 농업 고용인, 임금 노동자 등이 늘어났음을 이 글에서 알 수 있다.

3 수용 및 해석의 적절성 평가

〈보기〉

농업이 피해를 입는 까닭은, 연초가 성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품 작물을 많이 재배하고 다른 작물 재배는 줄였다는 의미인, 람은 일체 엄금해야 된다고 말하나, 근래 의원 중에 장개빈 같은 이는 연초를 매우 양약(良藥)이라 치켜세워서 ‘그것이 담(痰)을 다스리고 장기(瘴氣)를 막고, 속을 덥게 하고 충(蟲)을 죽이는 공이 빈랑(檳榔)보다 낫다.’고 하니, 진실로 이와 같다면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양전(良田) 옥토(玉土)가 모두 연초 밭이 되면 이 또한 폐속(廢俗)입니다.

상품 작물 재배의 확대를 경계함.

〈보기〉에서는 농업이 피해를 입는 것은 연초를 많이 재배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좋은 농토가 모두 연초 밭이 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정약용은 연초와 같은 기호품 재배 때문에 농업이 파괴될 수 있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이 글의 글쓴이는 조선 후기의 변화상에 대해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을 뿐 자신의 태도를 드러내지 않았다. 또한 〈보기〉의 정약용은 상업적 작물을 많이 재배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 ③ 〈보기〉에는 연초의 의약적 효능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이 글에는 그러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④ 정약용은 가치가 있는 상업적 작물이라 하더라도 기름진 좋은 밭에 그것만 심는 것은 문제라고 하였다.
- ⑤ 이 글의 글쓴이는 연초 때문에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며, 국가에서 연초를 관리해야 한다고 말하지도 않았다.

지식 더하기

신하가 임금에게 올리는 글의 종류

- 상소(上疏) : 정사(政事)를 간(諫)하기 위해 글을 올리는 글
- 차자(劄子) : 구체적인 사실만을 간략히 적어 올리는 글
- 계(啓) : 관청이나 벼슬아치가 임금이나 중앙 관청에 올리는 공식적이고 사무적인 성격의 글
- 의(議) : 정책에 대한 입안을 돕기 위하여 올리는 건의에 가까운 형식의 글

4 어휘의 이해

㉓ ‘품귀’는 ‘물건을 구하기 어려움.’을 의미하므로 ‘귀한 물건이 됨.’은 품귀의 뜻풀이로 적절하지 않다.

실전 01 동양화의 공간 표현

예술

본문 54~56쪽

1 ④ 2 ④ 3 ⑤ 4 ⑤

개념 확인 문제 1 인간 2 역원근법 3 진정한 주체

| 이주현, 「동양화의 공간 표현」 |

[해제] 이 글은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는 사고방식을 기반으로 한 서양화의 투시 도법을 제시하고, '나'와 세계의 조화를 추구하는 동양화의 공간 표현법을 소개 하면서 이들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글쓴이는 서양과 동양의 사고방식이 그림에 투영되어 있음을 밝히며, 서양의 투시 도법과 다른 동양화의 기법, 즉 역원근법이나 다시점 기법과 같은 비투시 도법의 공간 표현을 예로 들어, 자연을 인간의 눈에 지배받는 단순한 대상이 아닌 화면의 진정한 주체로 승격시키는 동양화만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주제] 동양화의 공간 표현에 담긴 자연과의 조화 추구 정신

[구성]

1문단	서양화의 투시 도법에 담긴 인간 중심의 사상
2문단	동양화와 다른 서양화의 원근법
3문단	동양화에서 수학적 투시 도법이 발달하지 않은 이유
4문단	사물의 진실을 중시하는 역원근법
5문단	비투시 도법적 공간 표현에 담긴 자연관

[핵심 한눈에 보기]

동양화	서양화
사물이 뒤로 갈수록 커지는 역원근법과 자연을 여러 시점으로 그린 다시점 기법을 사용함.	사물의 실제 크기와 무관하게 '나'를 중심으로 수학적 비율에 따라 그린 투시 도법을 사용함.
↓	↓
'나'와 세계의 조화 (자연과 인간이 조화됨.)	'나'와 세계의 대응 (인간이 중심이 됨.)

1 글쓴이의 의도 및 관점

글쓴이는 동양화와 서양화의 공간 표현법을 대조하면서, 서로 다른 표현법에 반영되어 있는 두 문화권의 사상적 기반을 설명하고 있다. 즉 서양의 인간 중심 세계관이 서양화의 수학적 투시 도법에서 드러나고, 동양의 조화론적 자연관이 동양화의 비투시 도법적 공간 표현에 투영되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동양화와 서양화의 특징을 비교하고 있을 뿐, 특정 미술 작품을 언급하지도 않았고 특정 시대를 언급하지도 않았다.
- ② 그림에 담긴 동양과 서양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언급하였을 뿐, 감상자가 느끼는 감동이나 아름다움의 요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 ③ 그림에 사용된 기법을 중심으로 설명하였을 뿐, 특정 화가의 개성이 드러나는 기법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 ⑤ 자연에 대해 동양과 서양이 어떻게 바라보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였지만 예술 사조나 종교적 분위기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2 정보 간의 관계 파악

역원근법은 우리의 시각 경험에 배치되는데, 이는 시각적 경험보다 '사물의 진실'을 따르려는 경향을 보인 것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 나에게서 더 멀어서 내 눈에 더 작게 보이는 것이 실은 내 눈앞의 작은 물체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므로, 자연의 실제적 양상을 화면에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서양의 투시 도법이 거리 표현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화면의 정중앙이 아니라 대상을 관찰하는 '나'의 위치이다.
- ② 투시 도법의 적용에서 중요한 것은 사물의 실제 크기가 아니라 '나'의 눈에 보이는 크기이다.
- ③ 역원근법은 '나'에게 가까이 있어서 크게 보이는 사물이라도 더 작게 보이는 먼 것보다 실제로 작은 물체라면 화면 안에서 더 작게 그리는 방법이다. 따라서 먼 산에 있는 큰 소나무보다 눈앞에 있는 작은 국화꽃을 더 작게 그릴 것이다.
- ⑤ ㉠은 '나'를 중심으로 대상을 그리는 것이고 ㉡은 본질적 진실을 고려해 그리는 것이므로 두 공간 표현 모두 시간의 흐름을 따라 표현하지 않는다.

3 구체적 사례에 적용

보기

안견이 안평 대군의 꿈을 듣고 그린 조선 초기의 명화
조선 초기의 화가 안견이 그린 「몽유도원도」에는 삼원법(三遠法), 즉 「산 앞쪽에서 산 뒤쪽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중첩 효과를 나타내는 구도인 심원(深遠), 앞산에서 뒤쪽의 산을 조망하는 구도인 평원(平遠), 아래쪽에서 산 정상을 쳐다보는 구도인 고원(高遠)이 눈높이와 같은 높이에서 바라보는 방법 아래에서 위를 올려 보며 그리는 방법 한 화면 안에 공존하고 있다.

수학적 비례 관계는 서양화의 투시 도법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요소이다. 따라서 이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의 그림을 감상할 때, 안견이 심원과 평원을 중심으로 자연물의 수학적 비례 관계를 표현하려 했으리라고 짐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5문단에 따르면 다시점 기법을 사용한 이유는 자연에 대한 총체적인 경험을 표현하기 위해서이다.
- ② 5문단에 따르면 한 화면 안에 여러 개의 시점이 존재하는 것은 화면 안에서 거닐고 머무를 수 있는 소요감을 유발하기 위해서이다.
- ③ 5문단에 따르면 동양의 원근 표현에서 자연은 인간의 눈에 지배받는 단순한 사물이나 대상이 아니라 화면의 진정한 주체가 된다고 하였다.
- ④ 5문단에 따르면 비투시 도법적 공간 표현은 자연과 대등한 위치에서 대립하기를 포기한 채 자연에 수렴되고 귀의하려는 태도가 반영된 것이다.

4 어휘의 의미

㉠은 '보다'에 접미사 '-이-'가 붙어 파생한 피동사로, '대상을 평가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러므로 ㉠의 '보일'은 문맥상 '(~라고)평가될'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와 문맥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전문가처럼 보인다.'로 '전문가처럼 평가된다.'라고 해석되는 ㉡이다.

오답 풀이

- ①, ③ '눈으로 대상의 존재나 형태적 특징을 알다.'라는 의미를 지닌 '보다'의 피동사이다.
 ②, ④ '어떤 결과나 관계를 맺기에 이르다.'라는 의미를 지닌 '보다'의 피동사이다.

실전 02 목적론의 함정

인문

본문 57~59쪽

1 ② 2 ③ 3 ① 4 ④

개념 확인 문제 1 목적론적 존재론 2 목적과 원인을 혼동하는 경우
 3 판단력 비판

| 남경태, 「목적론의 함정」 |

[해제] 이 글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목적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목적론적 존재론'에 대해 설명하며, 이 이론이 범하기 쉬운 오류에 관해 예를 들어 서술하고 있다. 즉, 글쓴이는 목적론적 존재론이 어떤 사건이나 현상을 설명할 때 이론의 완성도를 높여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목적과 원인을 혼동하기 쉬운 위험성도 있음을 밝히며, 그 오류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 예로 어느 청년의 절도 행위, 목적론의 원조에 해당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범한 논리적 오류, 중세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을 논증하는 데 목적론을 활용하면서 범한 순환론적 오류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주제] 목적론적 존재론이 범하기 쉬운 논리적 오류

[구성]

1문단	목적론적 존재론의 개념
2문단	목적론의 함정에 빠진 가정적 사례
3문단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 소개
4문단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이 범한 오류
5문단	중세 시대 신의 존재 증명 과정에서 목적론이 범한 오류
6문단	목적론이 지닌 순환론적 오류의 가능성과 칸트의 비판

[핵심 한눈에 보기]

주창자	원인	설명 대상	목적
아리스토텔레스	참나무	도토리	참나무
토마스 아퀴나스	신(神)	모든 사물	신(神)

원인과 목적이 동일한 순환론적 오류가 발생함.

1 세부 정보 확인

3문단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운동의 네 가지 인자로 '질료, 동력, 형상, 목적'을 꼽았으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목적으로 보았다고 제시되어 있다.

오답 풀이

- ① 목적론의 원조는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대까지는 아직 유일신이 없었다고 하였다.
 ③ 목적론의 함정의 대표적인 예가 목적과 원인을 혼동하는 경우라고 하였다.
 ④ 토마스 아퀴나스가 목적론을 활용하여 신을 증명하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만, 그가 목적론을 보편적인 논증 방식으로 확립하였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⑤ 칸트는 목적론이 지식을 구성하는 원리가 아니라 지식의 범위를 규제하는 원리일 뿐이라고 하였다.

2 전개 방식의 특징

이 글은 목적론적 존재론을 화제로 하여, 어떤 사건이나 현상을 설명할 때 목적을 고려하면 상당히 그럴듯한 이론을 구성할 수 있다는 유용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 목적과 원인을 혼동하는 목적론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상반되게 제시하며 목적론적 존재론의 특징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있다(ㄴ). 또한 어느 청년과 관련된 가정적 상황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범한 논리적 오류,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을 논증하는 데 목적론을 활용하면서 범한 순환론적 오류를 내세워 목적론적 존재론이 지닌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ㄷ).

오답 풀이

- ㄱ. 이 글에서는 목적론과 목적론적 존재론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으나, 이들 간의 공통과 차이점을 설명하지는 않았다.
 ㄴ. 5문단에서 '마치 고기가 물을 만난 것처럼 신을 논증하는 안정맞춤의 도구가 된다.'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중세의 목적론이 신을 논증하는 데 많이 사용되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목적론은 이전의 유일신이 없던 시대와 달리 종교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위상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3 수용 및 해석의 적절성 평가

| 보기 |

헤겔은 절대정신의 외화가 세계이고, 역사란 절대정신이 자기실현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역사의 종착역은 다시 절대정신이다.

이 글은 목적론이 원인과 목적을 혼동하는 순환론적 오류에 빠지기 쉽다는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보기>로 제시된 헤겔의 이론은 절대정신이라는 개념이 세계의 원인이자 동시에 세계(역사)의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순환론적 오류에 빠져 버렸다고 반응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② <보기>는 역사의 발전 과정을 효과적으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목적론에서 흔히 나타나는 순환론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③ <보기>는 목적론의 함정에 빠진 논리 전개를 보이고 있으므로 완벽한 이론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④ <보기>는 헤겔의 이론에서 드러나는 순환론적 오류를 제시한 내용임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운동의 네 가지 인자를 내세운 목적론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⑤ 이 글을 통해서는 <보기>가 목적론의 함정을 보여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 절대정신이라는 개념 제시가 궤변인지는 판단할 수 없다.

4 어휘의 의미

㉔은 문맥상 ‘간주한다’와 같은 말로 바꿔 쓸 수 있다. ‘관측’은 ‘육안이나 기계로 자연 현상 특히 천체나 기상의 상태, 추이, 변화 따위를 관찰하여 측정하는 일.’ 또는 ‘어떤 사정이나 형편 따위를 잘 살펴보고 그 장래를 헤아림.’이라는 뜻이므로 ㉔과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㉓은 ‘어떤 대상을 가리켜 이른다.’를 의미한다.
 ② ㉒은 ‘어렵지 아니하고 매우 쉽다.’를 의미한다.
 ③ ㉑은 ‘사람이나 사물이 어떠한다고 가리켜 정하는데’를 의미한다.
 ⑤ ㉕은 ‘일정한 상태나 처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를 의미한다.

8 강

실전 01 판 구조론

과학

본문 62~64쪽

1 ② 2 ⑤ 3 ③ 4 ②

개념 확인 문제 1 판 구조론 2 확장 경계, 유지 경계, 수렴 경계

| 좌용주, 「판 구조론」 |

[해제] 이 글은 판 구조론에 대해 설명한 글로, 활동적인 판의 경계를 판들의 상호 운동 양상에 따라 확장 경계, 유지 경계, 수렴 경계로 나누고 각각의 종류에 따른 특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확장 경계’는 판들이 서로 멀어지는 운동의 경계로, 해령이라는 해저 산맥으로 주로 나타나며, 동아프리카 열곡대처럼 대륙 내에 분포하기도 한다. 한편 판들이 비스듬히 어긋나는 운동의 경계인 ‘유지 경계’는 해령의 축과 축 사이에서 주로 나타나며, ‘수렴 경계’는 판들이 서로 가까워지는 운동의 경계로서, 두 판이 서로 부딪치는 충돌 경계와, 한 판이 다른 판 아래로 가라앉는 침강 경계로 다시 나뉘는데, 침강 경계에서는 마리아나 해구처럼 해구를 만든다는 특징이 있다.

[주제] 판 구조론의 개념과 판 경계의 종류 및 특징

[구성]

1문단	판 구조론의 개념과 판의 경계를 파악하는 방법
2문단	확장 경계의 개념과 사례
3문단	유지 경계의 개념과 사례
4문단	수렴 경계 중, 충돌 경계의 개념과 사례
5문단	수렴 경계 중, 침강 경계의 개념과 사례

[핵심 한눈에 보기]

분류 기준	판들의 상호 운동 양상
	↓
확장 경계	판들이 서로 멀어지는 운동의 경계 예 동아프리카 열곡대
유지 경계	판들이 비스듬히 어긋나는 운동의 경계 예 산안드레아스 단층
수렴 경계	판들이 서로 가까워지는 운동의 경계 • 충돌 경계 : 지각이 솟아오름. 예 히말라야산맥 • 침강 경계 : 한 판이 다른 판 밑으로 들어감. 예 마리아나 해구

1 전개 방식의 특징

이 글은 2~5문단에서 판의 경계를 판들의 운동 양상에 따라 확장 경계, 유지 경계, 수렴 경계로 분류하고, 수렴 경계를 다시 충돌 경계와 침강 경계로 나누어 각 경계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대립되는 이론이 언급되지 않으며 주장보다는 설명이 주를 이루고 있다.
 ③ 판의 종류가 드러난 시각 자료가 제시되어 있으나 이를 통해 지구의 판 움직임이 나타나는 원인이나 결과를 알 수는 없다.
 ④ 가정을 설정하는 것을 가설이라 하고 이를 증명하는 것을 검증이라고 하는데, 이 글은 가설을 제시하고 그것을 검증하는 과정으로 전개되지 않았다.

⑤ 이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상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구체적 현상이다.

2 핵심 내용 파악

이 글에 판들의 운동 양상에 대한 설명은 제시되어 있지만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따라서 ‘수많은 판들을 이동하게 만드는 힘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라는 질문은 이 글을 읽고 답변할 수 없는 내용이다.

오답 풀이

- ① 1문단에서 ‘과거 수십 년간 지구 표층에서 일어난 지진과 화산 분포를 지도에 나타내 보면 판의 윤곽, 즉 경계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였다.
- ② 5문단에 따르면 마리아나 해구는 태평양 판과 필리핀 판의 경계부에서 침강이 일어나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
- ③ 5문단에는 ‘태평양 판이 유라시아 판 아래로 침강하는 경계와, 필리핀 판이 유라시아 판 아래로 침강하는 경계가 바로 일본의 태평양 연안에 위치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지진과 화산 활동이 잦다.’라는 내용이 있다.
- ④ 4문단의 끝부분에, ‘히말라야산맥의 높은 곳에서 가끔 해양 생물의 화석이 발견되기도 하는데, 그것은 두 판 사이에 놓여 있던 해양 지각의 물질이 충돌로 솟아오르게 된 결과다.’라는 내용이 있다.

3 구체적 사례에 적용

이 글의 내용을 참고할 때 <보기>의 ㉗는 확장 경계, ㉘는 유지 경계, ㉙는 수렴 경계 중 충돌 경계, ㉚는 수렴 경계 중 침강 경계를 알 수 있다. 그런데 4문단에서는 충돌 경계는 주로 대륙 판과 대륙판의 경계에서 나타나며 두 대륙판의 상부에 놓인 지각들이 서로 충돌하여 솟아오름으로써 육지의 거대한 산맥을 만든다고 했다. 따라서 충돌 경계가 주로 해양판과 해양판의 충돌로 거대 산맥을 만든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2문단에서 확장 경계는 주로 거대한 해저 산맥인 해령으로, 이는 지구 전체 면적의 25퍼센트에 달한다고 하였다.
- ② 3문단에서 유지 경계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산안드레아스 단층처럼 드물게 육지에 나타나는 것도 있다고 하였다.
- ④ 5문단에서 침강 경계는 해양판이 대륙판이나 다른 해양판 아래로 침강하는 것으로 침강 경계에서 일어나는 대규모의 지진과 화산 활동이 지구 전체 조산 운동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였다.
- ⑤ 4문단에서 충돌 경계와 침강 경계는 모두 수렴 경계의 한 종류라고 하였다.

4 세부 정보 추론

2문단에 따르면 확장 경계는 판들이 서로 멀어지는 운동의 경계이다. 동아프리카 열곡대는 그것이 대륙에 나타난 대표적인 예로, 아프리카 최대의 호수들도 그로 인해 생겨난 것이다. 따라서 만약 이 열곡대가 계속해서 확장된다면 판들이 점점 더 서로 멀어지게 되므로 동아프리카가 아프리카 대륙에서 떨어져 나와 버리게 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확장 경계는 인접한 판 중 어느 판이 다른 판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멀어지는 운동을 한다.

- ③ 동아프리카 열곡대 주변에 호수가 생긴다고 하였으므로 판들이 벌어지며 솟아오르는 게 아니라 끊어질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 ④ 호수의 물의 깊이가 알아지려면 지면이 솟아야 하는데 열곡대는 판이 서로 벌어지며 그 사이가 끊어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호수의 수심은 더 깊어질 것이다.
- ⑤ 동아프리카 열곡대는 아프리카 판 내부에 있으므로 유라시아 판과는 관련이 없다.

실전 02 완전 경쟁 시장

사회

본문 65~67쪽

1 ② 2 ④ 3 ① 4 ⑤

개념 확인 문제 1 자원의 효율적 배분 2 한계 수입 3 공평한 분배가 어려움.

| 이준구, 「완전 경쟁 시장」 |

[해제] 이 글은 완전 경쟁 시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매우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함을 제시한 뒤, 많은 경제학자들이 가장 바람직한 시장으로 완전 경쟁 시장을 꼽는 이유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밝히며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글쓴이는 그래프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한계 편익=한계 비용=한계 수입’의 등가 성립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완전 경쟁 시장이 공평한 분배라는 측면에서 볼 때 명백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의 위험을 언급하고 있다.

[주제] 완전 경쟁 시장의 장점과 한계

[구성]

1문단	완전 경쟁 시장의 성립 조건과 그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견해
2문단	한계 편익의 개념과 예시
3문단	개별 기업의 이윤 극대화 조건
4문단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완전 경쟁 시장의 특성
5문단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완전 경쟁 시장
6문단	완전 경쟁 시장이 지닌 한계

[핵심 한눈에 보기]

완전 경쟁 시장	장점	‘가격(한계 편익) = 한계 수입 = 한계 비용’ →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됨.
	단점	공평한 분배를 보장하지 않음.

1 글쓴이의 의도 및 관점

이 글은 2~5문단을 통해 완전 경쟁 시장이 자원 배분 면에서 왜 효율적인 시장인지 예를 들며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6문단에서는 완전 경쟁 시장이 지닌 한계를 언급하면서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한 맹신이 위험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이 글이 사례를 들어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해 설명하고는 있지만 이는 그 특성을 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또한, 1문단에서 완전 경쟁 시장이 현실에서는 무척 찾기 어렵다고 말하였다.
- ③ 이 글에는 완전 경쟁 시장 이외의 시장인 독점이나 과점을 언급하고 있지만, 그것들이 지닌 장단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비교는 하지 않고 있다.
- ④ 완전 경쟁 시장의 모순점이라기보다는 소득의 균등한 분배가 어렵다는 한계를 지적하고 있을 뿐이며, 새로운 시장 형태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지도 않았다.
- ⑤ 완전 경쟁 시장이 가장 바람직한 시장이라는 경제학자들의 주장이 언급되어 있지만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한 일반인들이 지닌 편견이나 오해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2 세부 정보 추론

3문단에서 든 예를 살펴보면, 한계 비용이 700원이고 한계 수입이 1,000원일 경우, 과자 회사는 과자 하나를 더 생산하면 300원의 이윤이 증가한다. 그러므로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는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보다 작을 때 생산량을 늘릴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2문단에서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 한계 편익은 수요 곡선의 높이, 즉 가격과 같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한계 편익과 수요량이 무관하다는 추론은 적절하지 않다.
- ② 1문단에서 완전 경쟁 시장은 많은 수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있어야 형성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판매자가 극소수일 때 완전 경쟁 시장 형성이 용이하다는 추론은 적절하지 않다.
- ③ 4~5문단의 내용에 따르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결과적으로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며,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극대화된다. 그러므로 한계 편익이 한계 비용보다 클수록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커질 것이라 추론은 적절하지 않다.
- ⑤ 6문단에서는 완전 경쟁 시장이 공평한 분배라는 면에서 명백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소득 분배가 불공평한 사회라면 상황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완전 경쟁 시장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추론은 적절하지 않다.

3 세부 정보 추론

글쓴이는 1문단에서 완전 경쟁 시장의 형성에 필요한 조건을 설명하며,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장을 찾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은 동질적이어야 한다고 했는데, 같은 종류의 상품이라도 생산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㉓)는 내용은 이 조건과 어긋난다. 또한, 완전 경쟁 시장은 많은 수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시장에 완전히 자유롭게 진입하고 이탈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높은 수익률이 발생한 시장은 기존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다른 기업들의 신규 진입을 막아(㉔) 완전 경쟁 시장의 형성을 방해할 소지가 있다.

오답 풀이

- ㉓ 소비자들이 기업이나 상품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환경은 참여하는 모든 경제 주체가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완전 경쟁 시장의 형성 조건과 부합한다.
- ㉔ 판매자의 수가 느는 것은 많은 수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있어야 한다는 완전 경쟁 시장의 형성 조건과 부합한다.

4 세부 정보 확인

1문단에서 완전 경쟁 시장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 면에서 여타의 시장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시장이라고 하였으나, 현실에서 찾아보기 어려우며 6문단에서 공평한 분배에 문제가 있다고 하였으므로 이상적인 시장 형태라고 할 수 없다.

오답 풀이

- ① 1문단에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많은 수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있으며, 모든 생산자와 소비자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수용한다는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많은 기업이 상품을 공급하고 이에 대한 수요자도 많기 때문에 개별 기업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내용을 유추할 수 있다.
- ② 6문단에는 독점과 과점 등의 불완전 경쟁 시장의 형태가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독점 시장은 단 하나의 생산자가, 과점 시장은 소수의 생산자가,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다수의 생산자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 ③ 1문단에서 경제학자들은 완전 경쟁 시장이 가장 바람직한 시장이라 주장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론상으로는 완전 경쟁 시장이 효율적인 시장 형태라 볼 수 있다.
- ④ 기업은 한계 수입 곡선과 한계 비용 곡선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생산량을 결정하며, 이때가 가격과 한계 수입이 일치하며 이윤이 극대화되는 조건을 충족한다.

실전 01 전통 한옥의 건축 기술

기술

본문 70~71쪽

1 ② 2 ① 3 ③

개념 확인 문제 1 한옥 짓기 2 다림보기 3 그랭이

| 김왕직, 「전통 한옥의 건축 기술」 |

[해제] 이 글은 전통 한옥을 지을 때 기초와 기둥을 놓는 방법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한옥을 지을 때는 먼저 땅을 견고하게 다지는 기초 작업을 한 다음, 습기를 피하고 햇빛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지면보다 집을 높여 주는 역할을 하는 기단을 만든다. 이후에 지면의 습기를 차단하고 기둥의 하중을 지면으로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초석을 놓고 '다림보기'라는 방법을 활용하여 초석 위에 기둥을 수직으로 세운다. 이때 기둥이 초석에 밀착되도록 초석 면에 따라 기둥 밑면을 깎는 그랭이질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건축 기법 때문에 기둥이 바로 설 뿐만 아니라 지반의 흔들림도 견뎌 낼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한옥 건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하여 단계별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주제] 한옥 짓기에서 기초 다지기부터 기둥 놓기까지의 과정

[구성]

1문단	기초와 기단의 개념 및 기능
2문단	초석의 기능과 종류
3문단	자연석 초석과 가공석 초석의 차이
4문단	기둥을 수직으로 세우는 다림보기 과정
5문단	그랭이질의 과정과 그랭이 기법의 의미

[핵심 한눈에 보기]

전통 한옥을 짓는 초반 과정



1. 기초 다지기	집 지을 땅을 견고하게 다짐.
2. 기단 만들기	집을 지면보다 높여 주는 기단을 만들.
3. 초석 놓기	기둥을 받칠 초석을 놓음.
4. 기둥 세우기	• 다림보기를 사용해 기둥을 초석 위에 수직으로 맞춤. • 그랭이질로 기둥과 초석을 밀착시킴.

1 구체적 사례에 적용

기둥을 자연석 초석이나 가공석 초석 위에 올려 기둥이 수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기둥 밑면을 다듬어 일치시키는 그랭이질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작업이고, ㉠은 기둥과 닿는 부분인 주좌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랭이질을 한 후 주좌에 기둥을 올려서 밀착시킨다는 내용은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은 주좌, ㉡은 초반인데 이것은 자연석을 그대로 사용하는 자연석 초석이 아닌 인위적으로 다듬는 가공석 초석에서 볼 수 있다.
③ 땅에 묻혀 기둥을 떠받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의 초반 부분이다.

- ④ 그랭이질을 이용하여 정밀하게 다듬는 것은 초석이 아니라 기둥 밑면이다.
⑤ 다림보기는 기둥을 수직으로 세우는 방법이므로 초석 만들기와는 관련이 없다.

2 수용 및 해석의 적절성 평가

| 보기 |

올해 진도 7.0 규모의 지진이 있었던 ○○ 지역에서 철근 콘크리트 건물의 기둥이 갈라지는 균열이 발생하였다. 한편 같은 지역에 있던 전통 한옥은 기둥이 미세하게 움직인 것 외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콘크리트 건물의 기둥은 기초에 붙어 있어서 지진으로 기초가 흔들리면 기둥에 금이 생긴다. 반면에 전통 한옥 기둥은 초석에 붙여 놓은 것이 아니라 그랭이질을 한 후 초석 위에 올린 것이다. 그래서 전통 한옥은 지진이 일어나 땅이 흔들리면 초석이 움직이 되 그 위에 있는 기둥까지 온전히 힘이 전달되지 않는 데다 기둥과 초석이 완전히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콘크리트 기둥처럼 균열이 생기지 않는다.

[오답 풀이]

- ② 자연석 초석은 자연석을 그대로 초석으로 이용한 것일 뿐, 지진을 대비하기 위해 사용한 것은 아니다.
③ 다림보기는 기둥을 수직으로 세우는 것으로, 상하좌우로 지면이 움직이는 지진에 대해 대비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④ 전통 한옥에서는 주로 목재를 사용하고, 초석에는 돌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목재보다는 콘크리트가 더 단단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재료상의 차이가 지진으로 인한 피해 차이를 가져왔다고 볼 수 없다.
⑤ 기단은 습기 방지와 쾌적한 생활을 위한 것으로 지진 대비와는 관련이 없다.

3 어휘의 의미

‘구성되어’는 ‘몇 가지 부분이나 요소들이 모여 일정한 전체가 짜여 이루어져’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여럿이 한데 모이다. 또는 여럿을 한데 모으는’이라는 의미의 ‘합쳐져’가 아니라 ‘이루어져’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③의 ‘차단하고’는 ‘액체나 기체 따위의 흐름 또는 통로를 막거나 끊어서 통하지 못하게 하고’를 의미하므로 ‘막고’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② ⑥의 ‘분류하면’은 ‘종류에 따라서 가르면’을 의미하므로 ‘나누면’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④ ④의 ‘밀착되어’는 ‘빈틈없이 단단히 붙어’를 의미하므로 ‘붙어’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⑤ ⑤의 ‘가공해’는 ‘원자재나 반제품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의 질을 높여’를 의미하므로 ‘다듬어’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실전 02 왜 법의 지배인가

사회

본문 72~73쪽

1 ② 2 ⑤ 3 ④ 4 ④

개념 확인 문제 1 인간관계 2 권위

| 박은정, 「왜 법의 지배인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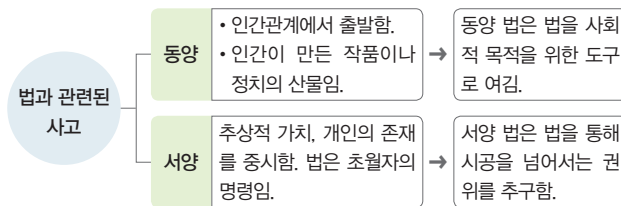
[해제] 이 글은 법의 토대를 설명하고,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동양 법과 추상적 가치나 개인의 존재를 중시하는 서양 법을 비교하고 있다. 솔로몬의 재판과 황태의 재판을 예로 들어 동서양 법사상의 차이를 보여 주고, 동서양 법 전통의 특징을 각각 설명하고 있다.

[주제] 동서양의 법에 대한 사고방식과 법 전통의 차이

[구성]

1문단	법의 토대가 되는 인격으로서의 상호 승인 관계
2문단	법에 대한 동서양의 사고방식의 차이
3문단	동서양의 차이를 보여 주는 법사상의 사례
4문단	서양 법 전통의 특징
5문단	동양 법 전통의 특징

[핵심 한눈에 보기]



1 세부 정보 추론

동양에서는 인간관계를 중시하고, 서양에서는 추상적 가치나 개인적 존재를 중시한다는 내용이 2문단에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동서양의 사고방식은 법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동양에서는 법이 인간관계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여겨지지만, 서양에서는 법을 통해 시공을 넘어서는 권위를 추구한다는 것을 4문단과 5문단에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동양 법과 서양 법에는 모두 사회 구성원들의 사고방식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법의 목적이 정의 실현인 것은 서양 법에만 해당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 ③ 신학, 철학, 정치 등은 시대별로 서양 법에 영향력을 끼친 지배 이데올로기로 언급되고 있다. 따라서 신학, 철학, 정치에 법이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신학, 철학, 정치에 법이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서양 법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다.
- ④ 동양 법은 인간관계를 중요시하고 있지만 서양 법은 추상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

⑤ 법이 지배 이데올로기를 따른다고 평가되는 것은 서양 법에 관한 설명이고, 인문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은 동양 법에만 해당하는 내용이다. 또한 지배 이데올로기로 신학, 철학, 정치학을 지목하고 있으므로 인문적 가치는 해당하지 않는다.

2 핵심 내용 파악

이 글은 인격으로서의 상호 승인 관계가 법의 토대가 됨을 밝힌 후, 법과 규범에 관련된 사고에서 동양은 인간관계를 중시하고 서양은 정의와 같은 추상적 가치를 중시한다며 법에 대한 동서양의 사고방식의 차이를 다루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동서양 사람들의 품성에 대한 이야기는 제시되지 않았다.
- ② 3문단에서 한자 성어를 통해 동양이 지향하는 사회의 모습이 제시되기는 하였지만 사회 구조로 보기는 어려우며, 서양의 사회 구조도 설명하지 않았다.
- ③ 법과 관련된 동양과 서양의 차이점에 대해 서술하고 있을 뿐 교류의 역사는 다루지 않았다.
- ④ 동서양 법의 차이점은 법에 대한 관점과 법의 바탕이 되는 사고방식에서 드러난다. 철학과 정치는 서양 법학의 기반으로 언급된 내용일 뿐이다.

3 수용 및 해석의 적절성 평가

<보기>의 재판관은 아기를 소중히 아끼는 유모의 모습을 보고, 아이가 유모의 아기라고 판정하고 있다. 이것은 동양의 황태의 재판에서 두 여인 중 누가 아이를 소중히 여기는지를 살펴 판결을 내린 경우와 비슷하다. 따라서 동양적 사고방식에 따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중시하여 재판을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재판관은 초월적 존재의 명령을 의식하지 않고 아기에 대한 인물의 행동을 관찰하여 판결한 것이다.
- ② 아기를 생각하는 유모의 마음을 생각해서 판결을 내린 것이므로 그녀의 좋은 품성을 중시한 판결이다.
- ③ 재판관은 유모와 아기의 인간관계를 중시하여 판결한 것이지만 혈연을 중시하여 판결한 것이 아니다.
- ⑤ 시공간을 넘어서는 권위를 추구하는 것은 서양 법 전통의 특징이다.

4 어휘의 의미

문맥상 ㉠의 ‘엿보다’는 ‘어떤 사실을 바탕으로 실상을 미루어 알다.’를 의미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묘사된다’는 ‘어떤 대상이나 사물, 현상 따위가 언어로 서술되거나 그림으로 그려져 표현된다.’를 의미하므로 ㉠과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이뤄진다’는 ‘어떤 대상에 의하여 일정한 상태나 결과가 생기거나 만들어진다’라는 의미를 지니므로 ‘성립(成立)된다’라는 한자어로 바꾸어 쓸 수 있다.
- ② ‘여겨졌다’는 ‘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그와 같다고 여겨졌다’라는 의미의 ‘간주(看做)됐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 ③ ‘밝혀냈다’는 ‘어떤 사실을 자세히 따져서 바로 밝혔다’의 의미인 ‘규명(緝明)했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 ⑤ ‘찾으려는’은 ‘목적물 이를 때까지 뒤쫓아 구하려는’이라는 의미를 지닌 ‘추구(追求)하려는’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실전 01 공정 무역 초콜릿에 대한 발표

화법

본문 78~79쪽

1 ⑤ 2 ③

1 말하기 계획

이 발표의 발표자는 마지막 부분에서 청중에게 공정 무역을 실천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으로 착한 초콜릿 구입을 제안하였으나, 착한 초콜릿 구입처를 자세하게 알려 주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 ① 공정 무역의 대표적인 사례인 착한 초콜릿을 중심으로 공정 무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② 발표자는 발표 처음 부분에서 '착한 초콜릿'이 초콜릿이 예뻐서 착한 초콜릿인지, 착한 사람이 만들어서 착한 초콜릿인지 그 의미에 대해 질문을 함으로써 청중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다.
- ③ 카카오 농장에서 일하는 농부들의 비참한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보여 줌으로써 불공정 무역의 문제점을 실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④ 일반 초콜릿과 착한 초콜릿의 이익 비교표를 보여 주며 불공정 무역을 통해 생산되는 일반 초콜릿과 공정 무역을 통한 초콜릿의 차이점이 어떠한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담화의 수용 및 평가

이 발표의 발표자는 생산자인 농부들이 투입되는 노력에 비해 턱없이 적은 비용을 받고 있는 불합리한 실상을 폭로하고 있다. 이는 결국 불공정 무역의 문제점 때문에 생산자가 피해를 보는 현실을 비판한 것이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써야 했던 농약을 문제 삼은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공정 무역을 통해 생산자들은 정당한 대가를 받고 희망과 자부심을 가지고 좋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며 공정 무역의 긍정적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착한 초콜릿을 삼으로써 공정 무역에 동참할 것을 청중에게 권하고 있으므로 발표자는 공정 무역에 대해 긍정적 관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발표자는 청중에게 질문을 한 후 대답을 듣거나 청중의 반응을 살피며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 ④ 2011년 영국 공정 무역 재단에서 발표한 내용이라며, 발표자가 활용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며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⑤ 이 발표에서는 공정 무역의 사례로 착한 초콜릿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례를 보충하였다면 발표 내용이 더 풍부했을 거라고 반응할 수 있다.

지식 더하기

공정 무역(fair trade)

공정 무역은 국가 간의 동등한 위치에서 이루어지는 무역으로, 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한 기회 제공, 투명성 및 신뢰 확보, 공정한 가격 지불, 건강한 노동 환경의 제공 등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생산자들이 가져야 할 몫을 다국적 기업들이 가로채고 있다는 인식이 나타난 1950년대부터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 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해 주고 저개발 국가들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자는 취지에서 전개된 것이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커피, 초콜릿, 설탕, 수공예품 등이 있다.

실전 01 반 티셔츠를 선정하기 위한 학급 토의

화법

본문 82~83쪽

1 ③ 2 ④ 3 ③

1 토의 참여자의 역할

사회자는 철수가 말하려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묻거나 토의자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했을 뿐, 특정한 의견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질문을 통해 보충 설명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 ① 사회자는 수경의 의견이 유지하다고 비난하는 희주에게 이 토의는 싸우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며 토의의 목적을 상기시키고 있다.
- ② 사회자는 토의 참여자들의 충분한 논의 과정 뒤에 '반 티셔츠는 담임 선생님의 캐리커처 문양에 우리 반 급훈을 넣는 것으로 결정됐어.'라며 토의의 결론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④ 사회자는 '잠깐만, 그건 주제에서 벗어난 거야.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만 해 줬으면 좋겠어.'라며 토의 주제에서 벗어난 발언을 자제시키고 토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다.
- ⑤ 사회자가 철수에게 발언 기회를 빼앗길 뻔한 영서와 영서의 발언 기회를 가로채려 한 철수 모두에게 발언 기회를 충분히 주면서 토의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2 듣기·말하기 전략

일반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동의한다는 의미를 나타내며, 비언어적 표현에 해당한다. 수경은 ㉠과 같이 '좋은 생각이야.'라는 평가의 말과 동의의 뜻을 나타내는 비언어적 표현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영서의 의견에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토의 참여자들이 지난 체육 대회에서 수경과 같은 느낌을 느꼈는지 알 수 없다. 또한 토의 주제에 벗어난 이야기를 했으므로 다른 친구들이 일체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② 민지의 의견이 좋다고 말하였지만 자신의 의견을 덧붙여 주장하고 있다.
- ③ 영서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자신(철수)의 의견을 수정하고 있을 뿐, 영서의 의견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바른지를 확인하고 있지는 않다.
- ⑤ 기존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합의 내용을 비판하기보다는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3 담화 내용 생성

〈보기〉의 '점양의 격률' 설명에 따르면, 수경의 칭찬에 대해 영서는 자신에 대한 칭찬을 최소화하고 자신에 대한 비판을 극대화하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에는 자신이 한 일이 별로 없다고 하면서 자신의 의견이 친구들이 낸 의견을 모은 것일 뿐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실전 01 등·하교 시 학교 앞 도로가 혼잡한 문제를 다룬 논설문

작문

본문 86~87쪽

1 ③ 2 ④

1 글쓰기 계획

이 글은 처음 부분에서 학교 앞 도로가 혼잡하다는 문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고(ㄷ),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을 ‘먼저 조금 불편하겠지만 학생들이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등·하교 하는 것은 어떨까요?’라고 하며 질문의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다(ㄱ). 그리고 ‘학교와 관련된 문제가 생겼을 때 타율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며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율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ㄹ).

오답 풀이

ㄴ. 이 글에서는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상황에 대해 인터뷰해 보니, 대다수 학생들이 학교 앞 도로가 혼잡한 상황으로 인해 불안감을 가지고 등·하교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원인도 학생들에게 인터뷰를 해 보니, 등·하교 시간에 학생을 데려다주는 학부모님들의 자가용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와 같이 학생들의 인터뷰 내용을 간접적으로 인용하고 있다.

ㄸ. 이 글은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을 뿐, 주제 선정 과정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2 자료 활용 방안

학생들의 설문 조사 결과 학생들의 자가용 등·하교와 인근 주민들의 불법 주차는 모두 학교 앞 도로가 혼잡하게 된 중요한 이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특별한 인과 관계를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㉒의 학교 앞 도로가 혼잡한 이유를 묻는 설문 조사에서 ‘인근 주민들이 불법 주차를 하고 있어서’는 42%로 53%의 ‘등·하교시키는 자가용이 길을 막아서’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를 학교 앞 도로가 혼잡한 이유에 추가할 수 있다.

② ㉒의 등·하교 방법에서 자가용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등·하교시키는 자가용이 길을 막아서 학교 앞 도로가 혼잡해진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통계이므로 이를 학교 앞 도로가 혼잡한 이유에 추가할 수 있다.

③ ㉒의 신문 기사에서 걸어서 등·하교를 하면 학생들의 집중력이 높아진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 내용을 추가하여 도보로 등·하교하는 해결 방법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⑤ ㉒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전거를 이용한 등·하교는 학교 앞 도로를 혼잡하게 하지 않고, ㉒의 내용으로 볼 때에는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자전거를 이용한 등·하교 방법은 학교 앞 도로가 혼잡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추가할 수 있다.

실전 01 일상 속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수필

작문

본문 90~91쪽

1 ⑤ 2 ⑤

1 제시된 내용에 따라 글쓰기

⑤에서는 어떤 일을 할 때 중간에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를 담은 ‘도중에 포기한 많은 실패자들은 자신이 성공에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 모른다.’는 명언을 활용하여 어떤 일을 할 때든 힘을 내겠다는 글쓴이의 다짐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삶의 개선 의지를 담은 앞으로의 다짐은 드러나 있으나, 성찰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명언이 활용되지 않았다.

②, ③ 성찰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명언이 활용되었지만, 자신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다짐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④ 명언을 활용하여 자신의 삶을 바꾸겠다는 다짐이 드러나 있다. 그러나 도전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일이든 일단 부딪쳐 보겠다는 내용은 초고에 담긴 성찰과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2 내용의 보완·조정

‘논커녕’은 주로 반침 없는 체언류나 부사어 뒤에 붙어 앞말을 지정하여 어떤 사실을 부정하는 뜻을 강조하는 보조사이다. 따라서 ㉒의 ‘논커녕’은 지금과 같이 앞말과 붙여 쓰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하물며’는 ‘그도 그러하네 더욱이. 앞의 사실이 그러하다면 뒤의 사실은 말할 것도 없다.’라는 뜻을 지닌 접속 부사로, 늘 타던 버스와 늘 보던 풍경인데 오늘은 평소와 다른 느낌이 들었다는 내용과는 맞지 않는다. 따라서 ㉒에는 ‘왜 그런지 모르게. 또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라는 뜻의 ‘왠지’가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럽다.

② ‘늘 타던 버스’와 ‘늘 보던 풍경’이 색다르게 다가오는 행동의 주체이므로 피동 표현인 ‘다가와지는’이 아니라 능동 표현인 ‘다가오는’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빈번하다’라는 말 자체가 ‘번거로울 정도로 도수(度數)가 잦다.’라는 의미이므로 ‘잦은’은 의미상 불필요한 표현이다. 따라서 의미 중복을 피하기 위해 ‘잦은’은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올림픽 중계방송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계기가 되어 겨울나무를 새롭게 인식하게 된 것은 맞지만, 앞의 내용(올림픽 중계방송을 보면서 든 먹먹한 느낌)이 뒤의 내용(겨울나무에게서 발견한 모습)의 직접적인 원인이나 근거, 조건이 아니므로 인과를 나타내는 ‘그래서’라는 접속 부사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화제를 앞의 내용과 관련시키면서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때 쓰는 ‘그런데’와 같은 접속 부사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실전 01 음운의 변동 / 단어의 형성 / 품사

문법

본문 95~97쪽

1 ④ 2 ④ 3 ② 4 ④ 5 ③ 6 ④

1 음운의 변동

보기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혀의 최고점의 위치	입술 모양	평순 모음	원순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혀의 높이					
고모음		ㅣ	ㅍ	ㅡ	ㅗ
중모음		ㅔ	ㅟ	ㅓ	ㅜ
저모음		ㅐ		ㅑ	

‘ㅗ’는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뒤쪽에 있을 때 발음되는 후설 모음이고, ‘ㅐ’는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쪽에 있을 때 발음되는 전설 모음이다. 따라서 ‘우애’를 발음하면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뒤쪽에서 앞쪽으로 이동한다.

오답 풀이

- ① ‘ㅐ’는 혀의 위치가 중간인 중모음이고, ‘ㅣ’는 혀의 위치가 높은 고모음이다.
 ② ‘ㅓ’는 입술을 둥글게 오므려 소리 내는 원순 모음이고, ‘ㅣ’는 입술을 둥글게 하지 않고 평평하게 하여 소리 내는 평순 모음이다.
 ③ 발음할 때 입술의 모양을 기준으로 하면 ‘ㅑ’는 평순 모음이고, ‘ㅗ’는 원순 모음이다.
 ⑤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의 위치를 기준으로 하면 ‘ㅑ’는 후설 모음이고, ‘ㅣ’는 전설 모음이다.

지식 더하기

단모음의 분류 기준

① 혀의 최고점의 위치에 따른 분류

전설 모음	입천장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있을 때 소리 나는 모음 예 ㅣ, ㅔ, ㅐ, ㅑ, ㅓ
후설 모음	입천장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혀의 최고점이 뒤쪽에 있을 때 소리 나는 모음 예 ㅡ, ㅑ, ㅗ, ㅜ, ㅝ

② 입술 모양에 따른 분류

원순 모음	입술을 둥글게 하여 소리 내는 모음 예 ㅜ, ㅟ, ㅓ, ㅝ
평순 모음	입술을 둥글게 하지 않고 소리 내는 모음 예 ㅑ, ㅐ, ㅓ, ㅔ, ㅡ, ㅣ

③ 혀의 높이에 따른 분류

고모음	입을 조금 열고, 혀의 위치를 높여서 발음하는 모음 예 ㅣ, ㅑ, ㅡ, ㅗ
중모음	입을 보통으로 열고, 혀의 높이를 중간으로 하여 발음하는 모음 예 ㅔ, ㅓ, ㅑ, ㅜ
저모음	입을 크게 벌리고 혀의 위치를 가장 낮추어서 발음하는 모음 예 ㅐ, ㅑ

2 음운의 변동

| 보기 |

음운 변동이란 어떤 음운이 그 놓이는 환경에 따라 다른 음운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을 말한다. 음운 변동은 그 결과에 따라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원래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탈락, 없던 음운이 추가되는 ㉢첨가, 두 개의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로 되는 ㉣축약으로 구분된다.

식물 → [싱물] : ‘ㄱ’이 ‘ㅇ’으로 교체
 귀찮으니 → [귀차느니] : ‘ㅎ’이 탈락
 맨입 → [맨닙] : ‘ㄴ’이 첨가
 만형 → [마형] : ‘ㄷ’과 ‘ㅎ’이 ‘ㅌ’으로 축약

㉠의 ‘맨입 → [맨닙]’은 두 번째 음절의 초성 자리에 ‘ㄴ’이 추가되는 첨가가 일어나고, ㉡의 ‘식물 → [싱물]’은 첫 번째 음절의 ‘ㄱ’ 받침이 ‘ㄹ’ 앞에서 ‘ㅇ’으로 바뀌는 교체가 일어난다. ㉢ ‘만형 → [마형]’은 예사소리 ‘ㄷ’이 ‘ㅎ’과 만나 두 음운이 합쳐져서 거센소리인 ‘ㅌ’으로 발음되는 축약이 일어나고, ㉣ ‘귀찮으니 → [귀차느니]’는 ‘찮’의 겹받침 ‘ㄷㅎ’ 중 ‘ㅎ’이 없어지고 ‘ㄴ’만 발음되는 탈락이 일어난다.

3 단어의 형성

| 보기 |

통사적 합성어는 어근의 배열 방식이 국어의 일반적인 통사적 구문 구조의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 성 방법과 일치하는 합성어를 뜻한다. 이와 달리 어근의 배열 방식이 우리말의 통사적 구성 방법과 어긋나는 방법으로 형성된 합성어를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한다. 용언의 어간이 연결 어미 없이 다른 어간과 결합한 합성어, 용언의 어간이 연결 어미 없이 체언과 결합하는 합성어, 부사가 체언과 직접 결합한 합성어 등이 비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척척 + 박사 → 척척박사, 깜짝 + 쇼 → 깜짝쇼

‘벗어나다’는 ‘벗다’와 ‘나다’가 결합된 합성어로, ‘벗다’의 어간 ‘벗-’ 뒤에 연결 어미 ‘-어’를 붙여 ‘나다’와 결합한 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 ① ‘오가다’는 ‘오다’와 ‘가다’가 결합된 합성어로, ‘오다’의 어간 ‘오-’가 연결 어미 없이 ‘가다’와 바로 결합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③ ‘척척박사’는 부사 ‘척척’과 체언인 명사 ‘박사’가 직접 결합된 합성어로 비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④ ‘깜짝쇼’는 부사 ‘깜짝’과 체언인 명사 ‘쇼’가 직접 결합된 합성어로 비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⑤ ‘뒹뒹’은 용언 ‘뒹다’와 체언 ‘뒹’이 결합된 합성어로, ‘뒹다’의 어간 ‘뒹-’이 연결 어미 없이 ‘뒹’과 결합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4 단어의 형성

보기

파생어란 어근의 앞이나 뒤에 파생 접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어근의 앞에 붙는 파생 접사를 접두사, 뒤에 붙는 파생 접사를 접미사라 한다. 접두사와 접미사는 모두 의미를 더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기능을 하는데, 어근의 품사를 바꿀 수 없는 접두사와 달리, 접미사는 어근의 품사를 바꾸기도 한다.

‘나무꾼’의 접미사 ‘-꾼’은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의 뜻을 더함.
‘오르막’의 접미사 ‘-막’(동사 ‘오르다’ → 명사 ‘오르막’)
어근에 의미만을 더함.

‘나무꾼’의 ‘-꾼’은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또는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오답 풀이

- ① ‘꽃고추’는 명사 ‘고추’에 ‘처음 나온’ 또는 ‘덜 익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꽃-’이 붙은 파생어이다.
- ② ‘뜨개질’은 ‘뜨는 일’을 뜻하는 명사 ‘뜨개’에 ‘그것을 가지고 하는 일’ 또는 ‘그 것과 관련된 일’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질’이 붙은 파생어이다.
- ③ ‘취감다’의 접두사 ‘취-’는 ‘마구’ 또는 ‘매우 심하게’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다.
- ⑤ ‘오르막’은 어근 ‘오르-’에 접미사 ‘-막’이 붙어 어근의 품사를 동사(‘오르다’)에서 명사로 바꾼 파생어이다.

5 품사

보기

학생 : ‘다섯’의 품사는 수사로 알고 있었는데, ‘다섯 명이 왔다.’라는 문장에서 ‘다섯’은 관형사라고 하더라고요. ‘다섯’은 수사인가요, 관형사인가요?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말
체언 앞에 놓여서 체언을 꾸며 주는 말

선생님 : ‘다섯’ 뒤에 조사가 결합하여 체언의 기능을 수행한다면 수사, ‘다섯’이 뒤에 오는 체언을 수식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면 관형사로 봐야 해. 이처럼 형태가 같은 단어라고 하더라도 기능이나 의미에 따라 품사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품사의 통용’이라고 하지. 품사의 통용에 해당하는 예를 좀 더 알아볼까?

- ③에 제시된 ‘어둡다’는 그 의미가 각각 ‘불빛이 없어 밝지 아니하다.’와 ‘어떤 분야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다.’로 다르지만 모두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에 해당한다. ‘어두워’는 형용사 ‘어둡다’의 활용 형태일 뿐, 두 단어의 품사는 형용사로 같다.

오답 풀이

- ① ‘늦는다’의 기본형 ‘늦다’는 ‘정해진 때보다 지나다.’라는 뜻의 동사이고, ‘늦게’의 기본형 ‘늦다’는 ‘기준이 되는 때보다 뒤져 있다.’라는 뜻의 형용사이다.
- ② 첫 번째 문장의 ‘정말’은 어떤 일을 심각하게 여기거나 동의할 때 쓰는 감탄사이고, 두 번째 문장의 ‘정말’은 부사 ‘정말로’의 준말이다.
- ④ 첫 번째 문장의 ‘잘못’은 ‘옳게 하지 못한 일’을 뜻하는 명사이고, 두 번째 문장의 ‘잘못’은 ‘그릇되게’를 뜻하는 부사이다.
- ⑤ ‘대로’는 체언 뒤에 쓰이면 관계언인 조사이며, 관형어 뒤에 쓰이면 체언인 의존 명사이다.

6 품사

보기

동사와 형용사는 문장에서 쓰일 때에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에 해당한다. 동사와 형용사는 어간에 어미가 붙어 다양한 형태로 변하는데, 이를 활용이라고 한다. 활용할 때 연결 어미, 전성 어미뿐만 아니라 선어말 어미 등 다양한 어미를 취하는데, 그 과정에서 특정한 음운이 탈락되기도 한다. 동사는 어미의 결합에 특별한 제약이 없지만, 형용사는 현재 시제의 관형사형 어미 ‘-는’이나 청유형 어미 ‘-자’, 명령형 어미 ‘-아라/-어라’ 등과 결합하지 못한다. 다만 형용사도 감탄형 어미 ‘-아라/-어라’는 결합할 수 있다.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 ‘-는’, 청유형 어미 ‘-자’, 명령형 어미 ‘-아라/-어라’와 결합함.
‘-ㄴ’/‘-은’을 취함.

<보기>는 형용사의 활용 제한에 대한 설명이다. 비교적 자유롭게 어미와 결합할 수 있는 동사와 달리 형용사는 현재형 어미나 명령형 어미, 청유형 어미와 결합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다. ‘알맞다’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현재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인 ‘-는’과 결합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형용사에 결합하는 현재 시제의 관형사형 어미인 ‘-은’을 사용하여 ‘알맞은’으로 고쳐 써야 한다.

오답 풀이

- ① ‘바뀌었다’는 ‘바뀌다’의 어간 ‘바뀌-’에 과거 선어말 어미 ‘-었-’과 어말 어미 ‘-다’가 결합된 ‘바뀌었다’의 형태를 부적절하게 줄여 쓴 말이다.
- ② ‘아름다와라’는 어간 ‘아름답-’에 감탄형 어미 ‘-아라’가 결합된 형태이다. 그런데 ‘바’ 불규칙 용언의 경우 어간이 1음절일 경우에는 ‘고와’, ‘잡아라’ 등과 같이 모음 조화를 인정하지만, 2음절 이상의 어간일 경우 모음 조화가 깨지기 때문에 ‘-어라’를 결합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아름다워라’로 고쳐야 한다.
- ③ ‘잠그다’의 어간 ‘잠그-’에 어미 ‘-아’를 결합하면 ‘-’가 탈락되어 ‘잠가’가 된다. ‘잠궜’은 기본형의 형태를 오해하여 부적절하게 활용한 말이다.
- ⑤ ‘날다’의 어간 ‘날-’ 뒤에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경우 어간의 ‘ㄹ’이 탈락된다. 따라서 ‘날은’은 ‘나는’으로 고쳐야 한다.

실전 01 문장의 성분과 짜임 / 문법 요소 / 중세 국어의 특징

문법

본문 101~103쪽

1 ④ 2 ⑤ 3 ① 4 ① 5 ③ 6 ④

1 문장의 성분과 짜임

㉔ ‘들다’는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 좋게 받아들여지다.’라는 의미로 쓰인 자동사로서 주어와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오답 풀이

- ① ㉔은 뒤에 오는 명사 ‘발’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품사는 관형사이다. 문장 성분은 관형어이다.
 ② ㉔의 품사는 동사이고, 문장에서 체언인 ‘것’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문장 성분은 관형어이다.
 ③ ㉔은 서술어 기능이 없기 때문에 관형사 ‘다른’에 해당한다. 모든 관형사는 문장에서 관형어로 쓰인다.
 ⑤ ㉔과 같이 ‘되다, 아니다’ 앞에 쓰인 말은 보어에 해당한다.

2 문장의 성분과 짜임

보기

선생님 : 문장의 종류에는 호문장과 겹문장이 있고, 겹문장의 종류에는 이어진문장과 안은문장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어진문장은 다시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앞 절과 뒤 절의 의미가 대등한 관계에 있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고, 다른 하나는 앞 절의 의미가 뒤 절의 의미에 종속된 관계에 있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입니다. 자, 그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예를 들어 볼까요?

‘피카소는 죽었지만 그의 그림은 여기 남았다.’라는 겹문장은 ‘피카소는 죽었다.’와 ‘그(피카소)의 그림은 여기 남았다.’라는 두 개의 호문장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이때 앞 절과 뒤 절은 대조의 의미 관계로 서로 대등하게 이어져 있다. 그러므로 ⑤는 ㉔의 예문이 될 수 없다.

오답 풀이

- ① ‘시간이 남다.’와 ‘숙제를 먼저 해라.’가 조건·가정의 의미 관계에 있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② ‘11월이 되다.’와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군.’이 원인·이유의 의미 관계에 있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③ ‘여유가 생기다.’와 ‘나는 혼자 여행을 갔다.’가 원인·이유의 의미 관계에 있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④ ‘네 선물을 사다.’와 ‘오랫동안 돈을 모았어.’가 의도·목적의 의미 관계에 있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3 문법 요소

㉔에서 ‘께서’는 문장의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는 역할을 하며 (주체 높임), ㉔의 ‘께’는 객체인 ‘부모님’을 높이는 역할(객체 높임)을 한다.

오답 풀이

- ② 격식체와 비격식체는 상대 높임법에서 종결 어미에 의해 구분된다. ㉔은 ‘독립운동가셨습니다’에 ‘-습니다’라는 하십시오체를 사용한 격식체, ㉔은 ‘갔어’에 ‘-어’라는 해체를 사용한 비격식체, ㉔은 ‘결정할게요’에 ‘-요’를 사용한 비격식체, ㉔은 ‘싫다’에 ‘-다’라는 해라체를 사용한 격식체이다.
 ③ 상대 높임법은 종결 어미에 따라 실현되므로 ㉔~㉔ 모두 상대 높임 표현이 실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㉔의 ‘모시고’와 ㉔의 ‘여쭙옵’는 모두 객체를 높이기 위한 특수 어휘에 해당한다.
 ⑤ ㉔에서 ‘친구들’을 ‘선생님’으로 바꾸면 객체를 높여야 하기 때문에 ‘보고’를 ‘뵙고’로 바뀌어야 한다.

지식 더하기

상대 높임법의 체계

격식체	하십시오체 (아주높임)	-습니다, -습니다까, -십시오 등
	하오체 (예사 높임)	-오, -소, -십시오, -(는)구려 등
	하게체 (예사 낮춤)	-네, -나가, -게, -세, -(는)구먼 등
	해라체 (아주낮춤)	-나다, -냐 / -니, -아라 / -어라, -자, -(는)구나 등
비격식체	해요체 (두루높임)	해체에 보조사 ‘요’를 결합함.
	해체 (두루낮춤)	-어, -야, -지, -나 등

4 문법 요소

보기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게 되는 것을 피동(被動)이라고 합니다. 피동문은 피동 접미사 ‘-이-, -히-, -리-, -기-’가 붙어서 만들어진 피동사나 ^{파생적 피동} ‘-되다’, ‘-어지다’, ‘-게 되다’에 의해 ^{체언+접미사 ‘-되다’} ^{통사적 피동}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최근 어법에 맞지 않는 이중 피동 표현이나 불필요한 피동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우리말에 어울리지 않는 이러한 표현들은 되도록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적절한 피동 표현이 사용된 문장을 찾아 바르게 고쳐 볼까요?

‘파여졌다’는 ‘파다’의 어간 ‘파-’에 피동 접미사 ‘-이-’와 피동의 의미를 더해 주는 표현 ‘-어지-’, 과거 선어말 어미 ‘-었-’, 종결 어미 ‘-다’가 결합된 말이다. 피동 표현이 이중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부적절한 표현에 해당하므로 ‘파이었다’ 혹은 줄여서 ‘파였다’나 ‘뺐다’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패다’는 ‘파이다’의 준 말이다. 따라서 ‘패었다’는 피동 접미사 ‘-이-’가 두 번 쓰인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이달의 품

- ② '보여지다'는 피동 접미사인 '-이-'와 피동 표현을 만들어 주는 '-어지다'가 이중으로 사용된 말이기 때문에 '보이다'로 고쳐야 한다.
- ③ '믿겨지다'는 피동 접미사인 '-기-'와 피동 표현을 만들어 주는 '-어지다'가 이중으로 사용된 말이기 때문에 '믿기다'나 '믿어지다'로 고쳐야 한다.
- ④ 뺨은 동작의 주체인 '어머니'가 굽고 있는 것이므로 '구워진'은 불필요하게 피동 표현을 사용한 경우이다. 능동 표현인 '구운'으로 고쳐야 한다.
- ⑤ '설레다'는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들떠서 두근거리다.'는 뜻을 지닌 말로, 불필요하게 피동 접미사 '-이-'를 결합시킬 필요는 없다.

5 중세 국어의 특징

- 보기 -

孔·공子·지 ^{형제}曾子·중·대 날리 곁·사디 ·몸·이며 얼굴·이
며 머·리털·이·며 ·술·한 ^{개조}父·부母·모·식 반·주·은 거·사·라 敢·감·히
^{가되}
혈·위 상·하·오·디 아·니·홈·이 ·효·도·이 바·르·소미·오 ·몸·을
^{게자} ^{가되} ^{말씀하시되(골어)}
힐·계 하여 ^{상하게 하되} ^반 ^{것이라(여기 작기)}
의·도·노·를 행·행·호·야 일·홈·을 後·후世·세·예 제·적과 ·빠 父·부
^{이름(골어 작기)}
모·들 ^{현·더케} ^{이름(골어 작기)} ^{널리 퍼지게 하여} ^{이로써}
^{드러나게} ^{마침이나} ^{끝이나}

‘얼굴’이 중세 국어에서는 ‘형체’로 몸 전체를 의미하는 말로 쓰였지만, 오늘날에는 눈, 코, 입이 있는 머리의 앞면만을 의미하는 말로 쓰인다. 따라서 어휘의 의미가 축소된 사례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 ① 근대 이후에는 주격 조사가 받침이 있는 말 뒤에는 '이', 받침이 없는 말 뒤에는 '가'가 쓰였다. 하지만 중세 국어에서는 주격 조사 '가'가 없었기 때문에 '이'만 쓰였는데, 받침이 없는 말 뒤에서는 '·지'에서와 같이 주격 조사 '·이'가 쓰였음을 알 수 있다.

- ② 현대어의 부사격 조사 '에게'에 대응하는 말로 당시에는 '두·려'가 있었음을 현대어 풀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가·사·라'는 '것이라'의 이어 적기 표기이고, '아·나·흠·이'는 '아니함이의' 뜻으로 끊어 적기 표기를 따른 것이다.
- ⑤ 목적격 조사로 '를' 대신 '를'을 사용한 것은 앞에 있는 음절의 모음 'ㅏ'가 양성 모음이기 때문이다.

지식 더하기

표기 표현법

- 이어 적기 : 받침이 있는 체언이나 용언의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어미가 붙을 때 받침을 뒷받침 초성으로 표기하는 방식
- 끊어 적기 : 받침이 있는 체언이나 용언의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어미가 붙어도 종성 자음을 앞 음절에 그대로 두고 뒷받침의 초성에는 'ㅇ'을 적는 방식

6 중세 국어의 특징

보기

중세 국어의 의문문에서는 인칭과 의문사의 사용 여부에 따라 종결 어미가 달리 나타났다. 먼저 주어와 1인칭이거나 3인칭일 경우, 어비새(3인칭) 다 모미 편안수신기자(의문사 지) - 종결 어미 -「나가 쓰임 의문사가 없는 판정 의문문일 때에는 -나가, -녀가 쓰였다. 이와 달리 주어와 1인칭이거나 3인칭이지만 의문사가 있는 설명 의문문 비요(비구) 1(3인칭) 어드의문사 ○리셔 요노 - 종결 어미 -「노가 쓰임 일 때에는 -노고, -노가 쓰였다. 주어와 2인칭인 경우에는 의문사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나다가 쓰였다.

〈보기 2〉의 첫 번째 문장은 주어가 3인칭이고, 의문사 ‘어디’가 있는 설명 의문문이기 때문에 ㉠에는 의문형 종결 어미 ‘-뇨’가 결합한 ‘오뇨’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두 번째 문장은 주어가 2인칭이기 때문에 ㉡에는 의문사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의문형 종결 어미 ‘-ㄴ다’가 결합한 ‘잇넌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세 번째 문장은 주어가 3인칭이고, 의문사가 없는 판정 의문문이기 때문에 ㉢에는 의문형 종결 어미 ‘-ㄴ가’가 결합한 ‘편안하시넌가’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문학

본문 106~114쪽

- 01 ④ 02 ⑤ 03 ④ 04 ④ 05 ② 06 ② 07 ④
08 ④ 09 ⑤ 10 ③ 11 ③ 12 ④ 13 ④ 14 ⑤
15 ① 16 ⑤

[01~03] 신경림, 「산에 대하여」 / 이기철, 「청산행」

(가) 신경림, 「산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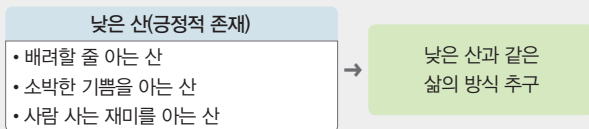
[감상] 이 시는 산에 인격을 부여한 후 섬세한 묘사를 통해 서민의 삶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특히 높은 산과 낮은 산을 대비하여 흔히 생각하듯 높은 산만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산에도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낮은 산과 같은 삶의 방식과 가치 추구

[구성]

1~2행	낮은 산의 존재에 대한 인식
3~7행	사람 가까이 있는 낮은 산
8~11행	사람들을 따뜻하게 배려할 줄 아는 낮은 산
12~17행	가난하지만 소박한 기쁨을 아는 낮은 산
18~21행	사람 사는 재미를 아는 낮은 산
22~26행	낮은 산의 존재에 대한 재인식

[핵심 한눈에 보기]



(나) 이기철, 「청산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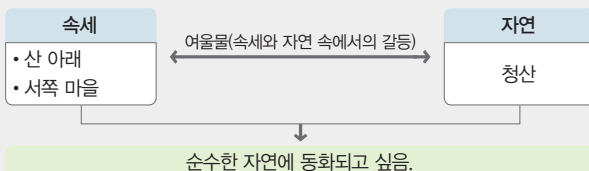
[감상] 이 시는 자연을 소재로 하여 일상적 삶에서 벗어나 자연에 동화되어 살고 싶은 소망을 담고 있다. 이 시의 화자는 청산으로 대변되는 자연에서 자연의 가치를 깊이 내면화하면서도 떠나온 일상에 미련을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청산에서 살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자연에서의 삶에 대한 소망

[구성]

1~3행	속세를 떠나 청산으로 옴.
4~5행	속세에 대한 미련
6~14행	청산에서 내려다본 속세의 풍경과 지난날에 대한 반추
15~17행	자연과 동화되고 싶은 소망

[핵심 한눈에 보기]



01 작품 간의 공통점

(가)에서 '낮은 산'은 의인화된 대상으로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소박한 기쁨과 사람 사는 재미를 아는 긍정적인 속성을 지닌 자연물

로서 화자에게 바람직한 삶의 모습에 대한 깨달음을 준다. (나)의 '맨살 비비는 돌들'은 속세를 떠난 화자가 청산에서 만난 순수한 존재로, 화자는 이러한 존재와 함께 잠들고 싶어 한다. 따라서 (가)의 '낮은 산'과 (나)의 '맨살 비비는 돌들'은 화자가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자연물로 주제를 형상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오답 풀이]

- (가)에서는 '아니다', '안다' 등을 반복하고 '아니다'를 '아니듯'으로 변형하여 반복함으로써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지만, (나)에서는 시어의 반복과 변형은 드러나 있지 않다.
- 화자의 감정을 나타낸 영탄적 표현은 (가)와 (나) 모두 드러나 있지 않다.
- (가)에서는 '낮은 산'과 '높은 산'이라는 서로 대립되는 의미의 소재가 드러나 있지만, 이를 통해 부정적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나) 또한 자연과 속세를 의미하는 대립적인 시어가 제시되어 있지만 이를 통해 현실을 비판하고 있지는 않다.
- (나)에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인가 → 자연 → 마을'로 시선을 이동하며 화자의 심리가 나타나고 있지만, (가)에서는 이러한 특징이 드러나 있지 않다.

02 작품의 종합적 감상

20행의 '쫄녕쿨처럼 머루 녕쿨처럼 감기고 어우러지는'에서 '쫄녕쿨'과 '머루 녕쿨'은 서로 싸웠다가도 하나로 어우러지며 함께 사는 서민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자연물이다. 인간들이 갈등하는 모습은 18~19행의 '사람들이 서로 미워져 잡아 죽일 듯 / 이빨을 갈고 손톱을 세우다가도'에 드러난다.

[오답 풀이]

- '낮은 산'의 모습을 '나즈막이 엮드려 있고'와 '동네까지 내려와'라는 표현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
- 이 시는 자연물인 낮은 산을 통해 화자가 바라는 인간적 삶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에 대한 시인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 때에 절은 '왕골자리'와 '누더기 이불'은 세상의 낮은 곳에서 가난한 생활을 하며 힘겹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을 생생하게 보여 주는 소재이다.
- 잡아 죽일 듯 이빨을 갈고 손톱을 세우는 행동은 아웅다웅하며 때론 다투기도 하는 서민들의 일상적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03 시어의 의미와 기능

'여울물'의 허우적임은 남쪽으로 길을 가다가 길을 놓친 화자의 갈등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므로, 청산에 와서도 화자가 여울물이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갈등과 번민했음을 의미한다.

[오답 풀이]

- ① ⑤는 화자가 청산에 온 지 며칠째 되면서 일어난 변화이다. 이는 자연에서의 삶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자연 속에서 며칠을 보내자 속세의 때를 벗고 자연 속에서의 삶에 익숙해진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 '상수리 열매'는 화자가 속세를 떠나 청산으로 가서 만난 자연물을 나타내는 데, 속세와 대비되는 성격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 '편지'와 '칫솔'은 인가(속세)를 내려다보다 생각난 것으로, 속세에서의 삶과 관련된 것이다. 그런데 화자가 이를 생각한다는 것으로 보아 속세에 미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맨살 비비는 돌들'은 세상에 때 묻지 않은 순수한 존재로 볼 수 있는데, 뒤의 시구를 통해 화자가 함께 잠들고 싶어 하는 대상임을 알 수 있다. 즉, 화자는 일상의 고뇌에서 벗어나고 싶은 소망을 자연물인 '돌'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04~06] 원천석, 「눈 마자 휘어진 대를 ~」 / 월산 대군, 「추강에 밤이 드니 ~」 / 황진이, 「동지·수달 기나긴 밤을 ~」

(가) 원천석, 「눈 마자 휘어진 대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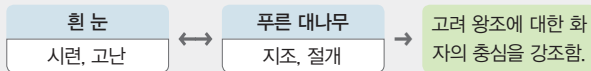
[감상] 고려의 유신 원천석의 시조로, 새 왕조(조선)에 대한 협력을 강요하는 무리들의 핍박 속에서 끝까지 지조를 지키려는 충절을 노래한 작품이다. 눈을 맞은 대나무는 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곧음과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진술을 통해 작가 자신의 굳은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주제] 대나무의 굳은 지조(고려 왕조에 대한 굳은 지조)

[구성]

초장	눈을 맞아 휘어진 듯 보이는 대나무
중장	휘어진 대나무의 변함없는 푸르름
종장	대나무의 드높은 절개

[핵심 한눈에 보기]



(나) 월산 대군, 「추강에 밤이 드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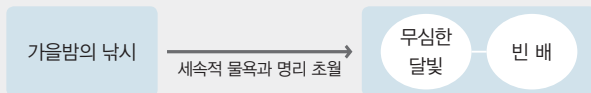
[감상] 성종의 친형으로 서책과 산수를 가까이 하고 풍류를 즐겼던 월산 대군이 세속의 명리를 벗어나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삶의 맛을 노래한 시조이다. 가을 달밤에 배를 띄워 낙시(낙수)로 풍류를 즐기는 모습이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하게 하며, 고기 대신 달빛만 가득 싣고 돌아오는 빈 배는 욕심을 버린 화자의 마음을 상징한다.

[주제] 가을 달밤의 풍류와 정취

[구성]

초장	가을밤의 찬 물결
중장	풍류로서의 낙수
종장	달빛만 실은 빈 배

[핵심 한눈에 보기]



(다) 황진이, 「동지·수달 기나긴 밤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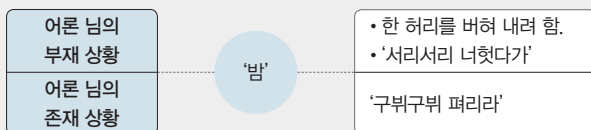
[감상] 시와 서화에 두루 능했던 기생 황진이가 지은 시조로서, 임을 기다리는 여인의 간절한 마음을 참신하고 개성적인 표현으로 담아낸 작품이다. 기발한 발상을 통해 추상적인 개념인 시간을 구체적 사물로 형상화하고, 우리 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렸다는 점에서 뛰어난 문학적 성취를 보여 준다.

[주제] 임을 기다리는 애타는 마음

[구성]

초장	임 없이 홀로 지내는 동짓달 긴 밤의 한가운데를 베어 내고 싶음.
중장	베어 낸 시간을 이불 아래 넣어 두고 싶음.
종장	사랑하는 임이 오신 밤이면 넣어 두었던 시간을 꺼내 펼치고 싶음.

[핵심 한눈에 보기]



04 작품 간의 공통점

(가)는 눈 내린 겨울날 대나무의 이미지를, (나)는 가을밤 차가운 강물의 이미지를, (다)는 동짓달 기나긴 겨울밤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가)의 '구불 절(節)이면'이나 (다)의 '어른 남 오신 날 밤이여든'은 가정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지만, (나)에는 이러한 가정적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다.
- ② (다)의 '서리서리'와 '구뽀구뽀'는 의태어로 음성 상징어에 해당한다. 그러나 (가)와 (나)에서는 이런 음성 상징어가 드러나 있지 않다.
- ③ (가)에서는 대나무를 '너'라고 표현하여 의인화된 청자에게 말을 건네고 있지만, (나)와 (다)에는 그런 방식이 드러나 있지 않다.
- ⑤ (나)에는 '물결이 초노미라.'라는 시구에서 촉각적 이미지를 활용한 표현이 제시되어 있지만, (가)와 (다)에는 그런 표현이 드러나 있지 않다.

05 시어의 의미와 기능

(나)의 화자는 중장에서 낙시를 드리우지만 정작 고기를 낚으려는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 또한 '아니 무노미라.'와 '무심', '빈 배'의 표현에서 화자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여유 있게 풍류를 즐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잡히지 않는 고기로 인해 화자가 회상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한 해석이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가)에서 대나무가 흰 것은 눈을 맞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눈'은 대나무에게 가해지는 모진 시련으로 해석할 수 있다.
- ③ '빈 배'와 '무심(無心)한 달빛'은 고기를 한 마리도 낚지 못했지만 달빛만 가득 싣고 돌아오는 모습을 통해 자연 속에서 여유를 즐기며 세속의 물욕과 명리를 초월한 화자의 내면적 경지를 보여 주는 소재이다.
- ④ (다)에서 화자는 '밤'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하여 그 한 허리를 잘라서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임이 오신 날 펴서 쓰겠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너털다가'는 임에 대한 화자의 정성이 담긴 행동으로 볼 수 있다.
- ⑤ 초장의 '밤'은 어른 남이 오지 않은 부정적 시간이지만 중장의 '밤'은 어른 남이 오신 날로 화자의 소망이 실현되는 시간을 의미한다.

06 작품의 종합적 감상

(가)의 화자는 대나무가 눈을 맞아 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푸르름을 유지하는 '세한 고절'의 자질을 지닌 존재라는 점을 예찬하고 있다. 그리고 <보기>의 '거사'는 먼지는 거울의 겉만 흐리게 할 뿐 거울의 맑은 바탕을 없애지는 못한다고 하면서, 먼지 낀 거울은 나중에 닦여져도 시기가 늦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두 사람은 모두 현상에 가려진 대상의 본질적 특성이나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 (가)의 화자는 의지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보기>의 '거사'는 수용하여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
- ③ (가)의 화자와 <보기>의 거사는 모두 미래 상황에 대한 낙관을 드러내지 않았다.
- ④ (가)의 화자는 공동체적 가치의 복원이 아니라 자신의 지조에 대한 굳은 의지를 나타내고 있고, <보기>의 '거사'는 현실적인 태도를 중시하고 있다.
- ⑤ (가)의 화자는 '눈'과 '대'의 비교를 통해 고려 왕조에 대한 자신의 충심을 강조하고 있다.

[07~10] 성석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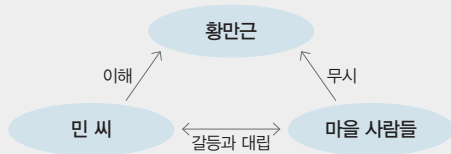
[감상] 이 글은 마을에서 반편이로 취급받지만 평생 성실하게 살다가 비명횡사한 농부 황만근의 일대기를 그려 낸 작품으로, 각종 부채가 늘어 가는 농촌의 현실과 메말라 가는 인심을 통해 삶의 어두움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이 글은 사건보다 인물들의 말을 통해 어수룩하게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일도 도맡아 하던 황만근이 사실은 얼마나 선량하고 성실한 인물인지를 그려 내면서 위선적이며 이해타산적인 마을 사람들과 대조하며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주제] 남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 분수를 지키는 인간의 모습, 부채로 얼룩진 농촌 현실과 메마른 인정

[구성]

황만근의 실종(현재)	경운기를 타고 나간 그가 귀가하지 않음.
황만근 노래의 내력(과거)	황만근 노래가 만들어지게 된 경위
황만근의 지난 삶(과거)	어머니가 시집오게 된 내력, 아내를 얻게 된 경위와 아내의 가출
황만근의 쫓겨 대회 참여(과거와 현재)	이장의 농민 쫓겨 대회 권유와 황만근의 죽음
황만근에 대한 민 씨의 평가(현재)	모비명 형식으로 황만근을 기림.

[핵심 한눈에 보기]



07 서술상의 특징

〈중략〉 이후 부분에서 황만근은 당대 농촌 사회의 문제점을 말하고 있다. 황만근의 말 다음에 이어지는 괄호 안에는 민 씨가 황만근의 말을 이해하고 해석하며 농촌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 논평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오답 풀이]

- ① 이 글은 대화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부분은 드러나 있지 않다.
- ② 〈중략〉 이후에 장면이 전환되고 있지만, 이 글에서 인물 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은 이장과 민 씨가 황만근의 실종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이다.
- ③ 이 글은 대화를 제외하고는 주로 과거형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다.
- ⑤ 주인공은 황만근이지만 이 글은 그가 겪은 일을 직접 다루기보다 민 씨가 황만근과 관련하여 겪었던 사건을 서술함으로써 작품의 주제를 조명하고 있다. 따라서 주로 민 씨라는 한 인물의 체험을 통해 농촌 사회의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08 인물의 심리 및 태도

민 씨는 황만근이 실종된 이유가 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에 홀로 경운기를 타고 가게 한 이장에게 있다고 생각하며 비판하고 있을 뿐, 자신의 잘못에 대해 시인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 ① 민 씨는 경운기를 타고 쫓겨 대회에 가기로 황만근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과 방침을 세워 놓고는 경운기를 타고 가지 않은 이장의 행동을 비판하고 있다.
- ② “읍에 가 보이 장날이더라고. 보나마나 어데서 술 처먹고 주질러앉을 끼라.”라며 이장은 술을 좋아한 황만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③ 이장은 국도에 경운기를 몰고 가면 지나가는 자동차 때문에 위험하다며 군청까지 경운기를 타고 갈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장은 애초에 경운기를 군청까지 타고 가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⑤ “도시에서 쫓딱 망해 가이고 귀농을 했시오 안전하게 납작 엎드려 있어도 동네 사람 시키 쫓까 말까 한데, 뭐라꼬?”라고 말하는 이장의 태도에서 민 씨는 아직 진정한 동네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9 소재의 의미와 기능

‘경운기’는 농촌의 대표적인 농기구이나 글의 내용으로 보아 이미 트랙터, 콤파인, 이앙기, 탈곡기, 건조기 등의 현대의 농업에 사용되는 기계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농업 기술의 현대화가 지체되었다는 설명은 적절한 내용이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민 씨는 황만근이 실종되자 이장에게 쫓겨 대회에 경운기를 타고 가기로 했으면서 왜 트랙터를 타고 갔느냐고 따지며 이장과 갈등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경운기는 민 씨가 이장과 대립하는 원인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 ② 황만근은 경운기를 타고 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죽게 되므로 경운기는 황만근의 죽음과 직결되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 ③, ④ 애초 계획과 달리 쫓겨 대회에 참석한 사람이 별로 없으며, 경운기를 타고 쫓겨 대회에 참석하기로 한 투쟁 방침과 달리 황만근만 경운기를 타고 쫓겨 대회에 참석했음이 드러난다. 이로 보아 황만근은 약속을 지키는 우직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10 작품의 종합적 감상

“농사꾼은 빚을 지마 안 된다 카이”라며 황만근은 농사꾼이 빚을 얻어 쓰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황만근은 개인적인 의지에 의해 각종 자금을 받지 않은 것이지 빌려 쓸 돈을 전달받지 못한 것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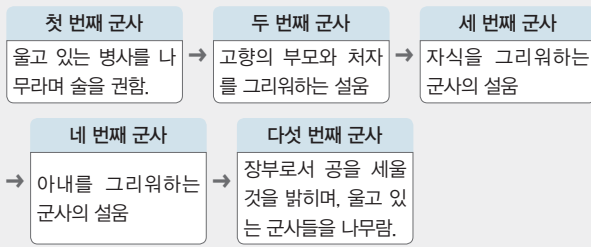
[오답 풀이]

- ① 농가 부채 탕감 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에 나가는 농민들의 모습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농촌 현실을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다.
- ② 옛날에는 소를 빌려주기도 하며 농사를 지었는데, 지금은 일 년에 한 집에서 한 번 쓰는 농기구조차 다른 집에 빌려주지 않고 있는 모습을 통해 메말라 가는 농촌의 인정을 풍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④ 민 씨와의 대화에서 농촌 정책을 비판하는 황만근은 부정적인 인물이 아니라 농촌 현실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자신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 ⑤ 황만근은 경운기를 몰고 쫓겨 대회에 참가하라는 방침을 따르다 교통사고를 당하여 죽게 된다. 이것을 통해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사회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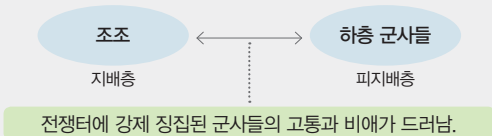
[11~14] 작자 미상, 「적벽가」

[감상] 이 글은 중국의 「삼국지연의」 중에서 ‘적벽 대전’ 부분을 판소리로 변용한 것으로, 원작은 중국 것이지만 주제성을 바탕으로 새롭게 재창조한 작품이다. 그 결과 조조를 희화화하거나 ‘군사 설움’과 ‘군사 점고’와 같은 내용이 덧붙여서 원작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시된 부분은 전쟁에 동원된 군사들이 부모와 처자식에 대한 그리움을 토로하는 장면을 해학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군사 설움’의 대목에 해당한다.

[주제] 적벽 대전에서의 영웅의 활약과 하층 군사들의 고통
[구성]



[핵심 한눈에 보기]



11 서술상의 특징

이 글의 군사들은 전쟁터에 나오느라 부모나 처자식 등과 이별해야 했던 자신들의 애절한 사연들을 늘어놓으며 전쟁터에서 느끼는 설움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대화를 통해 사건을 전개하고 있으나, 인물 간의 갈등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인물들의 그리움을 표현해 전쟁을 겪고 있는 백성들의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상대방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 보라고 하면서 각각의 인물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므로 이 글에는 독백이 쓰이지 않고 있다.
- ④ 이 글에는 '출문망', '홍안 거러' 등의 고사성어가 사용되었으나 이를 사용해 인물의 빠른 실력을 과시하고 있는 부분은 드러나 있지 않다. 다만 전쟁에서 공을 세우고 싶어 하는 군사가 등장하기는 하나 이때는 옛글을 인용하여 군사들을 나무라고만 있다.
- ⑤ 이 글의 내용으로 보아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임을 짐작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시대적 배경을 묘사한 부분은 드러나 있지 않다.

12 인물의 심리 및 태도

㉔은 '함정에 든 범'과 '그물에 걸린 고기'라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전쟁터에서 도망가기 위해 피를 내 보았지만 사방에서 지키고 있어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범'과 '고기'는 대조적 소재가 아닌 위태로운 상황에 빠진 동일한 대상들을 의미한다. 또한 '고국'과 '무주공산 해골'은 대조적 소재로 볼 수 있으나, 이를 통해 이중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 ① ㉔은 다른 군사가 우는 것에 대해 요망스럽다고 하면서 질책하지만 또 '이리 오느라 술이나 먹고 놀자.'라고 하여 함께 어울릴 것을 권유하고 있다.
- ② ㉔은 "만일 객사를 하게 되면 ~ 후여쳐 날려 줄 이 있드란 말이나."라며 자신이 전쟁터에서 죽으면 장사를 지내 줄 사람이 없다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 ③ ㉔은 오대 독자인 자신이 힘들게 자식을 얻은 과정과 그 자식에 대한 그리움을 말하였는데, 이를 들은 다른 군사들은 '졸장부의 말'이라고 하며 꾸짖고 있다.
- ⑤ ㉔은 군사가 되어 공명도 못 이룬다면 부끄럽다고 하면서 공을 세워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 친지들이 기뻐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13 작품의 종합적 감상

이 글에서 힘없는 민중이 군인이 된 것은 지배자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그들을 동원했기 때문이다. 이는 민중 출신인 영웅의 출현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민중을 내세워 전쟁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하고 그러한 상황을 초래한 폭력적 권력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이 글은 「삼국지연의」의 적벽 대전의 이야기를 판소리로 변용한 것이다. 원래의 이야기와 달리 이름 없는 군사들을 등장시켜 그들의 사연을 토로하게 하였는데, 이를 통해 영웅 서사시에서 민중의 노래로 거듭났다.
- ②, ⑤ 이 글에 등장하는 군사들은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배자의 야망으로 인해 강제 동원된 민중들로, 그에 대한 군인들의 설움이 드러나 있다.
- ③ "장부가 세상을 태어나서 전장출세를 못하고 죽으면 장부 절개가 아니라"는 대목은 조선 후기 남성들의 가치관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14 속담 및 한자 성어

[A]는 전쟁터에서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상황이므로 '자식이 객지에서 고향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을 이르는 망운지정(望雲之情)과 관련이 있다.

[오답 풀이]

- ① 극기복례(克己復禮)는 '자기의 욕심을 누르고 예의범절을 따름'을 의미하는 말이다.
- ② 살신성인(殺身成仁)은 '자기의 몸을 희생하여 인(仁)을 이룸'을 의미하는 말이다.
- ③ 풍수지탄(風樹之嘆)은 '효도를 다하지 못한 채 아버지를 여읜 자식의 슬픔을 이르는 말'이다.
- ④ 정충보국(精忠報國)은 '정성과 충성을 다바쳐 나라에 보답한다.'는 의미이다.

[15~16] 이강백, 「결혼」

[감상] 이 글은 어느 빈털터리 남자의 극적인 결혼 성공담을 통해 진정한 소유와 사랑이라는 인간 존재의 본질적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물질적 소유에 빠져 있는 사회 모습을 풍자하고 있다. 이 작품은 별다른 무대 장치도 없고 관객과 무대의 구분이 없어 관객으로 하여금 극중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실험적인 방식이 사용되어 있다. 또한 한정된 시간 동안만 물건을 빌렸다가 되돌려 준다는 설정을 통해 세상 모든 것이 원래부터 남들에게 빌린 것이라는 소유의 본질을 전달하는 한편 진정한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주제] 소유의 본질과 참된 사랑의 의미

[구성]

발단	'남자'는 부유해 보이도록 여러 가지 물건을 빌린 후 '여자'와 맞선을 보기로 함.
전개	'남자'는 '여자'를 만나는 동안에 빌린 물건을 하나씩 하인에게 빼앗김.
위기	'남자'는 '여자'에게 청혼을 하지만 '남자'가 빈털터리임을 알게 된 '여자'는 '남자'에게 작별 인사를 함.
절정	'남자'는 '여자'에게 진심을 말하며 자신의 사랑을 고백함.
대단원	'여자'는 '남자'의 진심을 깨닫고 그의 청혼을 받아들임.

[핵심 한눈에 보기]

소유의 본질

우리가 가진 것은 모두 빌린 것이므로 소중하게 아꼈다가 되돌려 주어야 함.



진정한 사랑

사랑하는 사람을 빌리는 것이므로 빌리는 동안 아끼고 헌신적으로 사랑해야 함. → 소유하는 사랑이 아닌 헌신적인 사랑이 필요함.

15 작품의 종합적 감상

‘하인’의 구두발은 ‘남자’가 저택을 빌린 시간이 지나자 쫓아내기 위한 행동으로, 극의 긴장감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남자’를 질책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 ② ‘남자’가 결혼을 하기 위해 최고급 저택, 하인, 호사스러운 의복 등을 빌린 것은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였기 때문이다.
- ③ ‘남자’는 “모두 빌린 것들뿐이었지요.”라며 “그리고 어쩌면 여기 있는 나머지도, 또 당신마저도…….”라고 하였다. 이는 자신이 빌렸던 물건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과 삶도 잠시 빌린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 ④ ‘남자’는 “모두들 덤으로 빌렸지요. 눈동자, 코, 입술, 그 어느 것 하나 자기 것이 아니고 잠시 빌려 가진 거예요.”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여자의 별명인 ‘덤’은 이 글에서 소유의 본질을 나타내는 데 활용되고 있다.
- ⑤ ‘여자’는 ‘남자’가 빈털터리라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고 작별 인사를 하지만, 결국에는 남자의 진심을 깨닫고 결혼을 결심한다.

지식 더하기

‘하인’의 행동에 담긴 의미

하인이 엄청나게 큰 구두를 가져와서 신는 행위는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남자를 차 버릴 듯이 서서히 다가옴으로써 극의 긴장감을 높여 준다.

16 형상화 방식

이 글에서 ‘남자’는 관객에게 말을 건네며 관객의 넥타이를 빌려 소품으로 이용했음을 알 수 있다. <보기>에서도 특별한 무언가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관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였고, 이들이 있기에 넥타이를 빌리는 것이 가능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관객이 ‘남자’의 요구에 의해 극 중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배우와 관객의 경계가 무너지며 연극의 일부가 되고 있으므로 연출자는 관객에게 연극에 적극적인 참여와 몰입을 하도록 부탁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남자’가 관객들에게 “이게 당신 겁니까? 정해진 시간이 얼마지요?”라고 묻거나 “(넥타이를 빌렸었던 남성 관객에게) 내 말을 들어 보시오.”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 관객들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공연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연극을 이끌어 가는 것은 여전히 등장인물들의 대사이고, <보기>에서도 ‘별다른 조명이나 장치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였으므로 관객들에게만 조명을 비추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② 이 글에는 남자, 여자, 하인의 세 명만 등장하며, <보기>에서 응접실이나 아담한 소극장처럼 실내에서 공연하기 알맞은 곳을 배경으로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넓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③ <보기>를 보면 관객이 극에 참여할 수 있는데, 관객들에게 소도구를 빌리는 행위는 주제와 관련하여 관객의 몰입을 높이고,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 효과를 준다. 따라서 사전에 관객들에게 연극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데 필요한 복장을 준비하도록 알리는 것은 즉석에서 관객이 배우와 자연스럽게 소통하도록 유도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이 글에서 ‘남자’는 ‘모자와 넥타이, 호사스러운 의복 ~ 빌렸던 겁니다.’라고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보기>에서 그러한 소품들은 구색에 맞지 않고 다소 엉뚱하여 우스꽝스럽기는 하지만 부자처럼 보이게 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구색에 맞지 않다고 하였으므로 연출자가 사전에 ‘남자’의 허영심을 드러내는 값비싼 소품들을 각각의 종류별로 준비할 필요는 없다.

01 ⑤ 02 ⑤ 03 ⑤ 04 ① 05 ② 06 ② 07 ④
08 ⑤ 09 ⑤

[01~03] 「탄소의 순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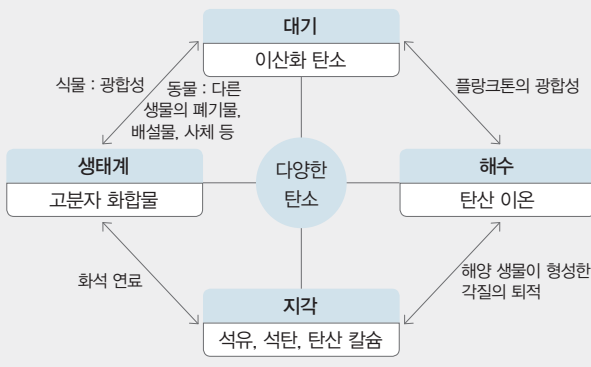
[해제] 이 글은 지구상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탄소의 순환을 설명하고 있다. 1문단에서 탄소 순환의 개념을 설명한 다음, 2문단부터는 탄소 순환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일어나는지를 생태계와 대기, 생태계와 지각, 지각과 대기, 해수를 매개로 하여 일어나는 순환 등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주제]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탄소의 순환

[구성]

1문단	지구상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순환하는 탄소
2문단	생태계와 대기 사이에서 일어나는 탄소의 순환
3문단	생태계와 지각, 지각과 대기 사이에서 일어나는 탄소의 순환
4문단	해수를 매개로 하여 일어나는 탄소의 순환

[핵심 한눈에 보기]



01 전개 방식의 특징

이 글은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탄소 순환의 과정을 권역별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2문단에서는 주로 생태계와 대기 사이에서 일어나는 탄소의 순환을, 3문단에서는 생태계와 지각, 지각과 대기 사이에서 일어나는 탄소의 순환을, 4문단에서는 해수를 매개로 하여 일어나는 탄소의 순환을 설명하고 있다.

[오답 풀이]

- 전하려는 내용을 항목별로 나열하여 서술하는 병렬식 구성을 따르고 있지만, 가설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 '통시적'은 어떤 시기를 종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글에서는 시간적 흐름에 따라 탄소 순환의 과학적 의미를 설명하고 있지 않다.
- 이 글에서는 구체적 수치를 들어 탄소 순환량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새로운 이론을 검증하고 있지는 않다.
- 탄소 순환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을 뿐, 서로 다른 이론의 내용을 비교하거나 분석하고 있지는 않다.

02 미루어 알기

해양 표층수의 플랑크톤과 육상의 식물은 공통적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 탄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육상의 식물이 해

양의 플랑크톤보다 더 많은 양의 이산화 탄소를 흡수한다는 내용은 이 글에서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해양이 지구 표면적의 약 70.8%를 차지하고 있고, 대기보다 50배나 많은 용존 무기 탄소를 함유하고 있다는 설명을 고려할 때, 해양의 플랑크톤이 육상의 식물보다 이산화 탄소의 양을 줄이는 데 더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지난 150년 동안 화석 연료를 빠른 속도로 소비하면서, 해양과 육지의 생물체가 흡수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산화탄소를 대기 속으로 방출하였다는 설명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다.
- 표층수에 있는 플랑크톤은 광합성을 통해 해수로부터 탄소를 제거함으로써 해양이 대기로부터 탄소를 흡수하는 데 일조한다는 설명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다.
- 육상의 산림은 광합성을 하며 이산화 탄소를 소비하기도 하지만, 호흡을 통해 이산화 탄소를 방출하기도 한다. 하지만 광합성으로 소비하는 양이 호흡으로 방출하는 양보다 약 20억 톤 정도 많다는 설명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다.
- 화석 연료의 연소로 인해 발생하는 이산화 탄소의 양이 해양과 육지의 생물체가 소비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대기 중에 방출되어 축적되기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높아졌다는 설명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다.

03 수용 및 해석의 적절성 평가

이 글은 탄소의 순환을 소개하며, 탄소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보기>의 (가)는 화산 활동에 의하여 지각 내의 탄소가 대기로 방출되는 현상인, (나)는 육상 생명체의 트림과 방귀에 의하여 생태계 내의 탄소가 대기로 방출되는 현상이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 글에는 탄소의 효율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므로 <보기>의 (가)와 (나) 중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오답 풀이]

- 화석 연료가 연소되면 이산화 탄소가 대기 중으로 방출된다. 이는 (가)에서 화산 활동으로 인해 지각 내의 탄소가 대기 중으로 분출되는 과정에 해당한다.
- (나)의 현상은 소가 유기물을 포함하고 있는 풀이나 사료를 먹고 나타나는 생리적인 현상에 해당하므로 식물에 포함된 이산화 탄소를 소비한 후, 대기 중으로 이산화 탄소를 내보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 (가)의 현상은 지각의 탄소를, (나)의 현상은 생명체의 탄소를 대기 중으로 방출하는 과정에 해당한다.
- (나)의 현상은 (가)의 현상과 달리 장내 세균의 증가를 막는 사료를 개발하여 인위적으로 탄소 발생량을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04~07] 허만옥, 「영화의 이해와 탐색」

[해제] 이 글은 영화에서 편집이 갖는 위상을 연극과 비교하여 제시한 후, 영화감독인 그리피스가 분류한 편집의 종류와 그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연속 편집'은 행위나 사건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어떤 장면을 서너 개의 컷으로 압축해서 보여 주는 편집이고, '고전적 편집'은 사건의 연속성을 깨뜨리지 않으면서 등장인물들의 감정이나 심리 상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편집이다. 마지막으로 '주제적 편집'은 현실적 시·공간의 연속성을 무시하고 서로 다른 장면을 충돌시키는 편집으로 관객들의 적극적인 해석을 요구한다.

[주제] 영화 편집의 종류와 특징

[구성]

1문단	영화에서 편집이 갖는 의의와 편집의 종류
2문단	연속 편집의 특징
3문단	고전적 편집의 특징
4문단	주제적 편집의 특징

[핵심 한눈에 보기]

연속 편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의 모든 행위를 전부 묘사하지 않고도 행위의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편집 • 이야기를 전달하는 설명적인 시퀀스에서 사용함. • 행위를 논리적·연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편집된 시퀀스를 방해하는 장면을 개입해서는 안 되며, 동작 및 행위의 일치, 조명과 색조의 일치, 시선 및 방향의 일치, 배경 음악의 일치 등의 원칙들을 지키려고 하며, 촬영 전부터 면밀하게 계획이 세워 있어야 함.
고전적 편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객들에게 등장인물들의 감정이나 심리 상태를 전달하기 위한 편집 • 사건의 연속성을 깨뜨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연속 편집과 공통성을 보임. • 그리피스가 시도한 이후 편집의 한 전형이 됨. • 감독의 의도에 따라 관객의 시야나 관객의 반응까지 통제가 가능함.
주제적 편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실적 시·공간의 연속성을 무시하고 관념들 사이의 결합을 강조하는 편집 • 고의적으로 연속 편집을 위반하며 숏과 숏 사이, 시퀀스와 시퀀스 사이에 상충이 일어나도록 하여 새로운 의미를 발생시킴.

04 세부 정보 확인

이 글에 제시된 세 가지 편집 기법 중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 것은 연속 편집과 고전적 편집으로, 이들 기법은 모두 사건의 연속성을 깨뜨리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오답 풀이]

- ② 1문단에서 영화는 미리 찍어 놓은 자료가 편집 과정을 거쳐 시·공간을 뛰어넘는 새로운 예술로 자리매김한 것이라고 하였다.
- ③ 2문단에서 연속 편집은 사건의 연속적 행위를 서너 개의 짧은 컷으로 압축적으로 보여 준다는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
- ④ 4문단에서 주제적 편집은 숏과 숏, 시퀀스와 시퀀스 사이에 최대한의 상충이 일어나도록 함으로써 서로 다른 이미지를 제시하여 새로운 의미가 발생하도록 하는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
- ⑤ 3문단에서 고전적 편집은 관객들에게 등장인물들의 감정이나 심리 상태를 전달하기 위한 기법이라 하며, 보여 주고 싶은 부분을 제시하기 위해 관객의 시점을 다양하게 이동시키거나 분할된 숏을 사용하여 관객의 반응을 조절한다고 하였다.

05 구체적 사례에 적용

영화 「대부」의 도입 부분에서 결혼식이 열리는 밝은 정원과 검은 거레가 진행되는 어두운 실내를 교차하여 보여 주는 것은 전형적인 주제적 편집 방법에 해당한다. 이러한 편집을 통해 감독은 대부의 삶에서 가족과 사업이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한 장면에서 관객의 시점을 다양하게 이동시켜 인물의 심리를 강조하는 편집 방법은 고전적 편집에 해당하므로 ②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서로 다른 장면이 교차하며 제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건의 연속성이 깨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③ 두 개의 장면은 이질적인데, 이는 주제적 편집을 통해 숏과 숏, 시퀀스와 시퀀스 사이에 최대한의 상충이 일어나도록 하여 새로운 의미를 발생하도록 하려는 감독의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두 개의 장면은 상충되는데, 주제적 편집에서는 관객들로 하여금 이 서로 다른 컷 사이의 상호 연관성을 찾아보도록 요구한다.
- ⑤ 두 공간에서의 장면을 교차하여 보여 주는 것은 현실적 시·공간의 연속성을 무시하고 관념들 사이의 결합을 감소하는 주제적 편집 방법이다. 따라서 이는 미리 찍어 놓은 자료를 가지고 편집이라는 과정을 거쳐 시·공간을 뛰어넘는 새로운 예술을 창조하는 영화의 장르적 특성을 잘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지식 더하기

대부(Mario Puzo's The Godfather)

영화 「대부(代父)」는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이 1972년에 만든 영화로, 마리오 푸조가 쓴 같은 이름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여 제작한 것이다. 이 영화는 마피아 세계에서의 배신과 사랑을 그려 내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평론가들의 극찬을 받았다. 특히 주연을 맡았던 알론 브란도는 대부의 역할을 잘 소화해 내 그 이듬해 아카데미 남우 주연상을 수상했지만, 이를 거부하여 아카데미의 역사에서 두고두고 회자되었다고 한다. 한편 이 영화는 1973년에 우리나라에서 개봉되었으며, 이후 두 차례 더 재개봉을 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06 글쓴이의 의도 및 관점

이 글에서 글쓴이는 영화에서 편집이 갖는 의의를 언급과 비교하여 제시한 후, 미국의 영화감독 그리피스의 분류에 따라 영화 편집 방법을 연속 편집, 고전적 편집, 주제적 편집으로 나누어 각각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2문단에서 예를 들어 연속 편집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2문단에 제시된 예도 편집의 어려움을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와는 거리가 멀다.
- ③ 편집 종류에 따라 내용이 전개되고 있을 뿐, 영화 편집 기술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 ④ 1문단에 영화와 연극의 차이가 언급되어 있지만, 비유의 표현 방식은 사용하지 않았다.
- ⑤ 이 글에서는 편집의 종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지만, 각각의 장단점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쓴 것은 아니다.

07 어휘의 이해

「통합하고」는 「둘 이상의 조직이나 기구 따위를 하나로 합치고」를 의미하므로, 「담고」가 아니라 「합치고」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연결하여」는 「사물과 사물 또는 현상과 현상이 서로 이어지거나 관계를 맺어」를 의미하므로 「이어」로 바꿔 쓰는 것은 적절하다.
- ② 「분류하였다」는 「종류에 따라서 갈랐다」를 의미하므로 「나누었다」로 바꿔 쓰는 것은 적절하다.

- ③ '도착하는'은 '목적한 곳에 다다르는'을 의미하므로 '다다르는'으로 바꿔 쓰는 것은 적절하다.
- ⑤ '위반하며'는 '법률, 명령, 약속 따위를 지키지 않고 어기며'를 의미하므로 '어기며'로 바꿔 쓰는 것은 적절하다.

[08~09] 「윤리적 상대주의와 윤리적 절대주의」

[해제] 이 글은 윤리적 상대주의와 윤리적 보편주의의 개념과 특성을 대조하며 설명하고 있다. 글쓴이는 윤리적 상대주의는 도덕적 진리가 문화, 계층, 개인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든 무조건 도덕규범을 지켜야 한다는 윤리적 절대주의의 절대성을 부정함으로써 윤리적 삶의 다양성과 실천적 한계를 허용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윤리적 상대주의가 지닌 장점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더 잘 드러난다고 하고 있다. 또 글쓴이는 윤리적 보편주의가 문화적 특수성을 관통하는 보편적인 도덕규범이 있다고 믿는 입장으로, 문화권마다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도덕규범보다는 인간의 이성애에 근거한 보편적인 도덕 법칙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고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글쓴이는 가치 다원주의를 지향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윤리적 보편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주제] 윤리적 상대주의와 윤리적 보편주의의 개념과 특성

[구성]

1문단	고대 그리스 윤리 사상의 두 흐름인 상대주의와 보편주의
2문단	윤리적 상대주의의 개념과 특징
3문단	민주주의 사회에서 장점이 드러나는 윤리적 상대주의
4문단	윤리적 보편주의의 개념과 특징
5문단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지켜야 할 윤리적 보편주의

[핵심 한눈에 보기]

윤리적 상대주의	윤리적 보편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피스트의 사상에서 시작됨. • 도덕적 진리가 문화, 계층, 개인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임. •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롭고 다양한 삶의 방식을 허용하는 장점이 더 잘 드러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크라테스와 그 제자들의 사상에서 시작됨. • 문화적 특수성을 관통하는 보편적인 도덕규범이 있다고 믿는 입장임. •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보편적 도덕은 지켜야 함.

08 전개 방식의 특징

이 글은 윤리적 상대주의와 보편주의 특징에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 두 가지 입장의 장점과 단점을 종합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 ① 4문단의 '예를 들어 '도둑질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와 같은 것이 모든 사회에서 인정할 수 있는 보편적인 도덕규범이다.'에서 구체적 사례를 들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1문단의 '그렇다면 윤리에 대한 상대주의의 입장과 보편주의의 입장의 특징은 무엇일까?'에서 질문을 던지는 형식을 통해 화제를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2문단의 '윤리적 상대주의는 도덕적 진리가 문화, 계층, 개인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와 4문단의 '윤리적 보편주의는 문화적 특수성을 관통하는 보편적인 도덕규범이 있다고 믿는 입장이다.'에서 윤리적 상대주의와 윤리적 보편주의의 개념을 정의하여 대상이 지닌 의미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2문단의 '윤리적 절대주의는 도덕규범의 영구불변하는 절대성을 옹호하면서 ~ 윤리적 상대주의는 이러한 절대성을 부정함으로써 윤리적 삶의 다양성과 실천적 한계를 허용한다.'에서 윤리적 절대주의와의 차이점을 통해 윤리적 상대주의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3문단의 '가치 일원주의는 획일화된 삶을 강요함으로써 개성을 말살하고 자율적인 삶을 훼손한다. 이에 비해 가치 다원주의는 개인들의 서로 다른 가치관을 존중하고, 자유롭고 다양한 삶의 방식을 허용한다.'에서 가치 일원주의와의 차이점을 통해 가치 다원주의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09 수용 및 해석의 적절성 평가

4문단에서 '윤리적 보편주의는 문화권마다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도덕규범보다는 그 규범의 이면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도덕 법칙에 더욱 관심을 기울인다.'라는 내용으로 볼 때, ① '윤리적 보편주의'는 이슬람 여성의 베일 착용이라는 한 문화권의 도덕규범보다는 그 규범의 이면에 존재하는 여성 인권 침해를 반대하는 보편적인 도덕 법칙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① '윤리적 상대주의'는 어떤 상황이거나, 인간이 지닌 실천적 한계를 고려하지 않고 항상 그 규범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윤리적 절대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무조건 베일 금지법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부정할 것이다.
- ② ① '윤리적 상대주의'는 도덕적 진리가 문화, 계층, 개인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슬람 사회와 문화가 서로 다른 그 외의 사회가 베일 금지법을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 ③ ① '윤리적 상대주의'는 개인들의 서로 다른 가치관을 존중하고, 자유롭고 다양한 삶의 방식을 허용하는 가치 다원주의에서 그 장점이 더욱 잘 드러나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슬람 여성의 베일 착용이라는 문화적 전통을 존중하고 다양한 삶의 방식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 ④ ① '윤리적 보편주의'는 인간 존엄성, 인권, 자유, 평등 등과 같은 가치가 지니는 보편성은 인간의 이성적 사유에 뿌리를 두고 있으므로 모든 인간 사회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여성 인권 보호도 모든 사회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 01 ③ 02 ② 03 ⑤ 04 ③ 05 ④ 06 ⑤ 07 ④
08 ④ 09 ④ 10 ⑤ 11 ③ 12 ④ 13 ② 14 ④
15 ③

01 참여자의 역할

이 토론에서 사회자는 토론의 논제를 소개하고 있으나, 토론이 열리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사회자의 두 번째 발언에서 찬성 측과 반대 측 주장의 요지를 정리하여 언급하고 있다.
② 사회자는 첫 번째 발언에서 토론 규칙을 지키면서 적극적이고 예의 바르게 토론에 임해 달라고 말하고 있다.
④ 사회자는 입론에서 찬성 측에게 먼저 발언권을 주며 이후 번갈아 가면서 발언해 달라고 말하였고, 반론에서는 반대 측에게 먼저 발언권을 주고 있다. 반론이 끝난 후에는 청중에게 질의할 기회를 주고 있다.
⑤ 사회자는 반대자 2의 발언에 찬성자 2가 반발하자 그 상황에 개입하여 상대방을 자극할 수 있는 발언을 삼가 달라고 말하고 있다.

02 담화 과정과 내용 파악

찬성 측은 윤리적 가치 즉, 동물의 생명도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동물 실험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적인 당위성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 ① 찬성자 1은 반론에서 영국의 사례를 들어 주장을 펼치고 있다.
③ 반대자 2는 첫 번째 발언에서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인용하여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④ 반대자 1은 반론에서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일에 동물의 희생은 불가피하다고 하며 인간 중심적인 가치관에 따라 동물 실험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⑤ 반대자 1은 첫 번째 발언에서 여론 조사 결과의 구체적 수치를, 찬성자 2는 첫 번째 발언에서 인간과 동물이 공유하는 질병의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03 말하기 계획

발표자는 한옥의 개념을 설명하며 선사 시대를 언급하고 현대에 한옥이 다시 각광받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으나, 한옥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이 발표는 한옥의 가치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설명적 말하기이다.
② '한옥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여러분'이라는 말에서 청중들인 학급 친구들이 한옥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사진을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에서 발표자는 사진을 시각 자료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한옥에 살아 본 사람 있나요?' (학생들의 반응을 살핀 후)에서 발표자가 청중과 상호 작용을 위해 질문 형식을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04 말하기 계획

면접관은 건축학과에 진학하기 위해 지원자가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를 묻고 있는 질문을 하고 있을 뿐, 진학을 준비하면서 겪은 어려움과 극복 과정을 묻는 질문은 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 ① 면접관은 첫 번째 질문에서 '건축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며 건축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묻고 있다.
② 면접관은 '자기 소개서를 보니까 ~ 설명해 줄 수 있나요?'라고 하며 지원자가 제출한 자료에 적힌 내용 중에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 묻고 있다.
④ 면접관은 '오래 기다리시느라 ~ 답변해 주세요.'와 같은 발화를 통해 지원자의 긴장감을 풀어 주고 있다.
⑤ 면접관은 '만약 학생이 건축가가 된다면 가장 해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와 같이 지원자가 자유롭게 생각하여 답할 수 있는 개방형 질문을 하고 있다.

05 듣기·말하기 전략

이 면접 과정에서 지원자는 사회적 현안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쪽방촌'에 대한 언급이 사회적 현안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풀이

- ① '자신 있는 목소리로 똑박똑박'은 준언어적 표현에 해당하며, 지원자는 이를 활용하여 건축가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자신의 가치관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② 건축가라는 장래 희망을 갖게 된 계기를 묻는 질문에 지원자는 봉사 동아리 활동을 했던 경험을 언급하여 답변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③ 지원자는 면접관의 마지막 질문에 '가장 해 보고 싶은 것이' '건축가로서의 일'과 관련된 것인지를 확인한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어 나가고 있다.
⑤ 지원자는 면접관이 진학을 위한 노력에 대한 질문을 하자 자신이 경험하거나 수행했던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06 내용의 구체화

㉠에는 'Ⅱ-2-마'에 제시된 청소년 비만의 원인과 관련지어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성인 비만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Ⅱ-2-마'가 청소년 비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음을 지적하고 있으므로, ㉠은 '청소년 비만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과 같은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은 주제문이므로 화제에 대한 주장을 분명하게 담아서 '청소년 비만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하다.
② 'Ⅲ'의 제시 방법이 '청소년 비만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촉구'이므로 그러한 문장 형식과 호응이 되도록 '청소년 비만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의 상위 항목은 '1. 청소년 비만의 현황과 심각성'인데 '청소년의 체격과 체력의 관계'는 이와 관련성이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인스턴트식품의 보편화'의 내용은 'Ⅱ-2-가'의 '잘못된 식생활 습관'에 포함되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07 제시된 내용에 따라 글쓰기

‘청소년 비만 개선 프로그램과 교육 과정의 연계’라는 항목과 관련한 내용을 <자료 1>에서 찾았다면, 청소년 비만 문제를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이는 학교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자료 2>는 청소년 비만 예방을 위한 실천 사항인데,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통해 알려 줄 수 있는 내용들이다. 따라서 학교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비만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는 것을 사회적 차원의 접근 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학업 스트레스는 ‘Ⅱ-3-나’와 관련하여 서술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다.
- ② 개요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 전체가 아니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사회적 차원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⑤ 개인적 차원의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08 글쓰기 계획

이 보고서에는 체험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 계획은 나타나 있지 않고, 체험 활동 장소인 고창에 가서 활동한 내용이 시간적 순서에 따라 서술되고 있을 뿐이다.

오답 풀이

- ① ㄱ. 환경의 중요성을 학습하고 휴식도 취하겠다며 체험 활동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 ② ㄴ. 체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갯벌의 여러 정보를 언급하고 있다.
- ③ ㄷ. 영국의 과학 전문지인 네이처지라는 출처를 밝히며 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 ⑤ ㄹ. 갯벌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체험 활동을 하며 느낀 점과 생각들을 끝부분에 자유롭게 서술하고 있다.

09 내용의 보완·조정

㉔의 앞 문장은 갯벌의 생태적 가치, ㉔의 뒤 문장은 개발로 인한 갯벌의 훼손에 관한 내용으로 앞뒤 문장이 상반되는 내용으로, ㉔에는 역접의 기능을 하는 접속어를 써야 한다. 따라서 ‘그래서’가 아니라 ‘그러나’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특정’은 ‘특별히 지정함’을 의미하므로 ‘특별한’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② 서술어가 ‘장소’와 호응해야 하므로 ‘가기로 했다.’가 아니라 ‘정했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③ ㉔은 갯벌에서 조개를 캐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문단 상황에서 글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⑤ ‘미력’은 ‘작은 힘’이라는 뜻이므로 ‘작고 미력한’은 의미가 중복된다. 따라서 ‘작은’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10 음운의 변동

‘날날이’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난나티]가 되고, 비음화에 의해 [난나티], 구개음화의 적용을 받아 [난나치]로 발음된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 구개음화는 모두 교체에 해당하므로 ‘날날이’에서 축약은 일어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 ① ‘숯[숯]’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국물[국물]’은 비음화의 적용을 받은 것이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는 모두 교체에 해당한다.
- ② ‘나뭇잎’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ㄴ첨가에 의해 [나문닙]이 되고, 이어서 비음화의 적용을 받아 [나문닙]으로 발음된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는 교체, ㄴ 첨가는 첨가에 해당한다.
- ③ ‘씨라’는 ‘쓰-+-어라’에서 ‘-’가 탈락된 것이고, ‘봐라’는 ‘보-+-아라’에서 ‘ㅇ’과 ‘ㅌ’가 ‘ㅍ’로 축약된 것이다.
- ④ ‘바느질’은 ‘바늘’과 ‘-질’이 결합하면서 ‘ㄹ’이 탈락한 경우이고, ‘한여름[한너름]’은 ㄴ이 첨가된 경우이다.

11 표준 발음

‘흙과’에서 ‘흙’은 체언이기 때문에 제11항의 ‘다만’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제11항에 의거하여 ‘ㄹ’은 자음 앞에서 [ㄱ]으로 발음되므로 [흑]으로 발음해야 한다. 참고로 ‘흙과’는 된소리되기의 적용을 받아 [흑과]로 발음해야 한다.

오답 풀이

- ① 제10항에 의거하여 ‘ㅈ’은 자음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 따라서 ‘활고’의 ‘활’은 [할]로 발음해야 한다.
- ② 제10항에 의거하여 ‘넙’의 ‘ㅈ’은 ‘넙죽하다’나 ‘넙둥글다’를 제외하고는 자음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 따라서 ‘넙다’의 ‘넙’은 [넙]로 발음해야 한다.
- ④ 제10항의 ‘다만’에 의거하여 ‘발-’은 자음 앞에서 [ㅂ]으로 발음해야 한다.
- ⑤ 제11항에 의거하여 ‘ㄹ’은 자음 앞에서 [ㄱ]으로 발음한다. 따라서 ‘말다’의 ‘말’은 [막]으로 발음해야 한다. 참고로 ‘말-’은 용언의 어간이므로 뒤에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경우 ‘제11항’의 ‘다만’에 의거하여 ‘ㄹ’을 [ㄹ]로 발음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말고’는 [말꼬], ‘말게’는 [말께]로 발음해야 한다.

12 사전 활용하기

㉠의 ‘요’는 사물이나 사실을 열거할 때 쓰는 연결 어미이고, ㉡의 ‘요’는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 ① ㉠은 어간 ‘아니-’와 연결 어미 ‘-요’가 결합된 것이고, ㉡은 어간 ‘아니-’와 종결 어미 ‘-오’가 결합된 것이다.
- ② ㉢은 <보기 1>의 ‘요 ②’로 앞말 ‘사람’에 붙어 사용된 조사이다.
- ③ ㉣의 ‘오’는 ‘아니다’의 어간 뒤에 붙어 설명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사용되었다.
- ⑤ ㉠의 ‘요’와 ㉡의 ‘요’는 둘 다 청자에게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보조사

- 보조사의 개념 : 체언, 부사, 어미 등에 붙어서 특별한 의미를 더해 주는 조사를 말한다.
- 보조사의 종류

보조사	의미
-은 / -는	어떤 대상이 다른 것과 대조됨을 나타냄. 예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도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냄. 예 내년에도 또 놀러 오렴.
-부터	어떤 일이나 상태 따위에 관련된 범위의 시작임을 나타냄. 예년부터 먼저 먹어라.

13 단어의 형성

‘헛발질’의 직접 구성 성분은 ‘헛발’과 ‘-질’이다. ‘-질’은 ‘그 신체 부위를 이용한 어떤 행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기 때문에 ‘헛발질’은 파생어에 해당한다. 참고로, ‘헛발’은 일부 명사 앞에 붙어 ‘이유 없는’, ‘보람 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헛-’이 붙어 만들어진 파생어이다.

오답 풀이

- ① ‘떡볶이’의 직접 구성 성분은 명사 ‘떡’과 명사 ‘볶이’이기 때문에 합성어에 해당한다. 참고로 ‘볶이’는 파생어이다.
- ③ ‘줄넘기’의 직접 구성 성분은 명사 ‘줄’과 명사 ‘넘기’이기 때문에 합성어에 해당한다. 참고로 ‘넘기’는 파생어이다.
- ④ ‘코웃음’의 직접 구성 성분은 명사 ‘코’와 명사 ‘웃음’이기 때문에 합성어에 해당한다. 참고로 ‘웃음’은 파생어이다.
- ⑤ ‘불꽃놀이’의 직접 구성 성분은 명사 ‘불꽃’과 명사 ‘놀이’이기 때문에 합성어에 해당한다. 참고로 ‘불꽃’은 합성어, ‘놀이’는 파생어이다.

14 정확한 문장 표현

‘형은 나보다 야구를 더 좋아한다.’는 비교 대상이 모호하므로 중의적인 문장이 된다. 그러나 이 문장을 ‘형은 야구를 나보다 더 좋아한다.’로 바꾼다고 해도 중의성이 해소되지 않는다. 따라서 ‘형은 야구를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나 ‘형은 나와 야구 중에 야구를 더 좋아한다.’로 바꿔야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예측하다’라는 말 속에 ‘미리’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미리’를 중복하여 쓸 필요가 없다.
- ② 서술어 ‘불었다’와 호응하는 주어는 ‘바람이’이다. ‘비’에 해당하는 서술어를 따로 써야 한다.
- ③ 주어가 ‘이유는’이기 때문에 서술어는 ‘때문이다’가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 ⑤ ‘주차시키면’은 주동으로 표현해도 되는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시키다’라는 사동 표현을 사용한 경우이다. 이러한 표현은 ‘-하다’로 바꿔 쓰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따라서 ‘주차하면’으로 고쳐야 한다.

15 중세 국어의 특징

모음 조화는 양성 모음(ㅏ, ㅑ, ㅗ)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ㅓ, ㅕ, ㅛ)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현상을 뜻한다. 이에 따르면 ‘서르’는 모음 조화가 지켜진 표기이고, ‘서로’는 모음 조화가 파괴된 표기이다. 이를 통해 현대 국어가 중세 국어에 비해 모음 조화가 지켜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중세 국어에서는 글자 왼쪽에 방점을 찍어 소리의 높낮이인 성조를 표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현대에 풀이를 보면 ‘中東國·국·에’에서 ‘에’는 현대 국어에서 비교 부사격 조사인 ‘과’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 ④ ‘어·린’은 현대 국어에서 ‘나이가 적은’을 뜻하지만, 현대어 풀이를 보면 중세 국어에서는 ‘어리석은’을 뜻하고 있다.
- ⑤ ‘·쁘·들’에 쓰인 어두 자음군 ‘ㅼ’은 오늘날 된소리인 ‘ㅄ’로 바뀌어 ‘똥’으로 해석되고 있다.

메모

메모